

한국 그리스도(인)의교회들 초기 50년사(1924-1974)

V1. 한국의 사도 바울 김은석 목사의 반천련

조동호 목사(그리스도의 교회 연구소)

1. 김은석 목사의 반천련(伴天連)

예수회 신부 프란시스 사비에르가 1549년 8월 15일 일본에 입국한지 반세기쯤 지났을 때 일본에 기독교 인구가 50만 명에 달했다고 한다. 이 당시 일본인들은 기독교인들, 특히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신부들을 반천련(伴天連)이라고 불렀는데, 이는 ‘천국까지 동행하는 무리’란 뜻이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1587년 7월에 반천련들은 20일 이내에 일본을 떠나라는 반천련 추방령을 내렸다. 또 조서를 내려 기독교인들을 엄히 다스리라고 명령하였다.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최측근 가운데 ‘다까야마 우쨌’이란 그리스도인이 있었는데, 배교하라는 히데요시의 명령을 받고 이렇게 말했다. “각하께 목숨은 드릴 수 있지만, 저의 신앙은 버릴 수 없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임진왜란이 끝나기 1년 반 전인 1597년 2월 5일 6명의 예수회 신부들과 일본인 기독교인 20명을 나가사키(長崎)시 니시자카 언덕에서 십자가에 처형했다. 이것은 동아시아 최초의 십자가 처형 사건이었다.

김은석 목사에게도 반천련 곧 천국까지 동행하는 무리가 있었고, 그 수가 많아서 여기에 다 일일이 거명할 수가 없다. 따라서 여기서는 자료가 가능한 인물들만 선별해서 소개하려고 한다. 이들 가운데는 김명석(김성철 목사의 친부), 박점상, 김교인,¹⁾ 신현창, 최춘선,²⁾ 정찬성,³⁾ 김상호,⁴⁾ 김태수,⁵⁾ 김재순,⁶⁾ 함태영, 이신, 강순명,⁷⁾ 이원노, 김정만, 심영진, 장주열,⁸⁾ 최요한, 김동열,⁹⁾ 김은영, 고광석, 임남규, 전도희, 등이 있다.

1) 김명석(주일) 목사(1906-?)

김명석 목사의 본명은 김주일이다. 그는 1931년 25살 때 일본에 건너가 부인 구봉림과 함께 일본 시모노세키에서 가까운 바닷가 ‘야마구찌깡(山口岨) 아사’라는 동리에서 살았다. 그는 김은석 목사의 성경통독메모(1953-58)에 26회 언급되었다. 그가 김은석을 처음 만난 것은 1936년 30살 때인 어느 주일날 아침 일본 산구현(山口岨)교회에서

1) 1956-57년경에 순복음교회로 이적함.

2) 김포교회 설립, 사회사업가. 소천 전 30여년을 맨발로 거리와 지하철에서 전도. 1951년 6월 김은석, 정찬성과 함께 충주시 동양면 조동(동량)교회 설립.

3) 순복음으로 이적함.

4) 순복음으로 이적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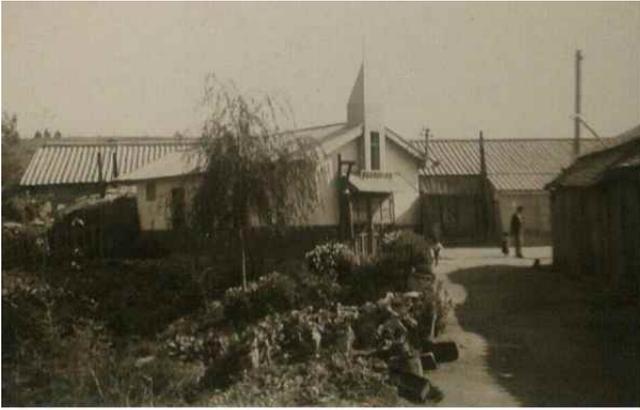
5) 부강교회 김교인 장로의 아들.

6) 부강교회 김교인 장로의 아들.

7) 광주 천혜 경로원 설립.

8) 최요한 목사의 큰 동서.

9) 광주 그리스도님의 교회 설립.



영운동 그리스도의 교회(충북 청주시, 1950년대)

산군 소수면 수리교회에서 목회하였다. 김은석의 성경통독메모에 의하면, 1955년 후반기에 경남 통영군 도산면 도선리 1구 그리스도의 교회를, 1957년에는 충북 청주 영운동 교회를 섬겼다.

2) 박점삼 목사/장로(1928.03.23. 음력-)



박점삼 목사

박점삼 목사는 1928년 3월 23일(음력) 경남 합천에서 태어났으며, 1933년 4월 여섯 살 때에 묘산면 관기리에 있는 교회를 어머니를 따라 간 것이 믿음생활의 시작이었다. 어머니가 병에 들었으나 약도 없고 나을 길이 없어 점쟁이를 찾았는데, “당신은 큰 신(神)을 믿어야 병이 낫는다.”고 하였다. 하루는 꿈에 외국인 이 나타났는데, 윗마을 교회에 찾아가서 보니, 강단 옆 벽에 걸린 예수님이 바로 꿈에 본 그분이었다. 그때부터 마음에 기쁨이 생기고, 교회 가는 것이 즐거워서 8킬로미터나 떨어진 교회를 일 년을 열심히 다녔더니, 일 년 후 알게 모르게 병이 다 나아 버렸다. 한편 아버지가 큰 외삼촌의 보증을 섰다가 집안형편이 심히 어렵게 되었으나 어머니는 맥추헌금을 넉넉히 작정하였다. 그 일을 어떻게 알았는지 사람들이 겁도 없이 헌금을 많이 작정하였다고 비방하였다. 하루는 박점삼이 아버지가 만들어준 지개를 지고 어머니를 따라 산에 올라 갔다가 싸리버섯을 발견하였는데, 두 번에 나눠서 가져와야 할 만큼 양이 많았다. 장날에 내다 팔았더니 작정한 헌금을 내고도 돈이 남았다.

1937년 2월 열 살 때 일본으로 건너가 도쿄도(東京都) 아다지(足立區)에 위치한 큰 강 건너 꽤 먼 거리의 일본인 교회를 출석하였는데, 그 교회는 매주일 주의 만찬을 거행하는 교회였다. 일본에서는 교파이름을 쓰지 않고 ‘기리스도노 교오카이’(그리스도의 교회)라고 통칭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침례와 매주 만찬을 행하는 그리스도의 교회

였다.

12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큰 누님 덕으로 이사를 들어갔다. 그런데 주변에 교회도 없고 큰 누님은 믿지 않는 분이라 핼박이 있어 주일마다 산에 올라가 기도하고 성경 보면서 어머니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교회가 있는 지역으로 이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했는데, 하루는 김은석 조사(전도사)가 우연히 찾아와 도쿄에서 아주 먼 거리에 위치한 야마구찌켄(山口峴) 도구야마시(徳山) 가스가조(春一町) 8032번지를 소개해 주었다. 그곳으로 이사하여 갔더니, 몇 가구가 함께 사는 교회당이었는데, 마침 두 개의 빈 방이 있어서 그곳에서 정착하였다. 그곳 교인들이 예배당을 따로 짓기로 결정하고 건축을 시작하였을 때, 박점상의 모친은 소다제조회사에 다니며 모은 돈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벽돌을 헌납하였다.

이때부터 김은석 목사와 친분을 맺게 되었다. 이때의 김은석의 이름은 일본말로 간다 긴세기 신전 은석이였다. 별명은 합바지(무명 바지) 조사(전도사)였고, 시모노세키(하관), 아사(김주일 거주), 덕산(박점상 거주), 동경지방 등 전국을 돌며 복음을 전하였다.

김은석 목사가 유명해지는 한편, 일본은 대동아전쟁 때부터 교회에 대한 간섭을 시작하였고, 목사들을 미국의 스파이로 의심했던 일본당국은 요주의 인물로 김은석을 꼽았다. 김은석은 신사참배와 동방요배(예배 시작 전에 현인신現人神으로 믿는 일본 왕이 살고 있는 동쪽을 향해 절하는 의식)를 거부하였으므로 문제가 되었다. 한번은 교회입구 통로에서 잡으러 온 왜경과 김은석이 어깨를 서로 마주치고 지나친 적도 있었다. 이후로 위협을 피하기 위해서 김은석은 박점상 가족과 함께 도쿄에 집을 얻어 이사하였다. 노동을 하면서 한 집에서 방 하나씩 차지하고서 김은석, 박점상 가족, 최창신 전도사와 그녀의 외손녀 히로코(홍자) 세 가족이 함께 살았다.

박점상은 김은석이 한국에서 어머니가 위독하다는 급전을 받고 귀국하면서 헤어지게 되었고, 동경교회를 다니다가 18살에 해방이 되어 김은석의 주소를 들고 서울로 나왔으나 혼잡한 기차에 오르면서 지갑(수첩)을 도난당하여 찾지 못하고 고향 합천으로 갔다가 다시 김은석을 찾아 김제군 망경읍으로 갔다.

박점상은 한국에 나오면서 김은석이 맡겨둔 짐 가운데 무거운 것은 가져오지 못하고 코트와 의류만 챙겨왔다. 책은 왜경이 다 가져가 버렸기 때문에 남지 않았다. 1946년 박점상은 망경읍에서 담임목사의 도움으로 주소는 모르지만 김은석이 서울에서 300만 부흥운동의 부흥사로 일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반가워 편지를 쓰고 받는 이의 주소를 무작정 “서울 김은석 목사님 귀하”라고만 써서 부쳤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몇 날이 못 되어 김은석으로부터 망경읍에서 40여리 떨어진 마채본 집사의 딸 집에서 동짓날 만나자는 답신이 왔다. 그러나 김은석은 사정이 있어 오지 못하고 대신 다른 사람이 와서 김은석 목사의 소식을 전하였다.

김은석 목사 가족이 서울 북아현동에 있을 때 박점상은 이웃에 방을 얻어 살았다. 김은석이 아직 그리스도(인)의교회들로 환원하기 이전인지라 재건교회를 비롯한 몇몇 교회들을 탐색하였는데, 자신의 신앙과 맞지 않음을 깨닫고 1946년 박점상과 함께 그리스도(인)의교회들로 환원하였다. 김은석은 비록 그리스도(인)의교회들이 성령운동에서는

자신의 뜻과 맞지 않지만, 침례와 주의 만찬 등의 교리가 성서적이라고 믿었던 것이다.

박점상은 1947년 부강으로 내려와 신화신학 성경연구회에서 일하며 부강교회 건축에 힘을 쏟았다. 그는 1949년 4월 금강에서 침례를 받자마자, 정찬성 목사가 충북 괴산군 불정면 외령리에 세운 외령교회를¹⁰⁾ 개척하여 섬기다가 신탄진 교회로 옮겨가자, 박점상이 외령교회 2대 담임목사로 부임하였고 후에 수룡교회를 개척하였다. 1950년 6·25 동란 때 고향 합천으로 피난하였다가 9·28 수복 후 외령교회로 돌아갔으며, 1951년 1·4 후퇴 때 다시 합천으로 피난하였으나 살길이 막막하여 합천 세무서에서 8월까지 일하다가 김은석 목사가 이동 중에 징집 당하지 않도록 존 힐 선교사를 통해서 미8군 종교담당자의 이름으로 통행증을 편지에 동봉하여 보내주었으므로 광주로 김은석을 찾아가 그곳 신화신학 성경연구회에서¹¹⁾ 공부하던 자매 정규님과 김은석 목사의 중매로 1951년 8월 13일(음력) 결혼하여 전남 평산리 처가에 신접살림을 꾸렸다.



1960년 초 박점상 목사의 침례신학대학교 졸업식에 참석한 김은석 목사와 김완례 사모

한편 처가 근방에 있는 전남 함평군 손불면 신흥 그리스도의 교회를 다니던 10여명의 성도들이 평산리에 있었는데, 교회가 30여리나 떨어져 있다 보니까 교인들이 박점상이 목회하다 온 줄로 알고 교회를 세워달라고 부탁하여 존 힐 선교사에게 개척자금을 요청하였더니, 얼마간의 돈을 보내주었다. 이에 박점상은 신흥교회를 오가면서 눈여겨 보아둔 주포의

빈 집을 사서 그 재목을 배로 운반하여 처가가 내준 땅에 평산리교회를 건축하여 개척하였다. 그 후 얼마 못되어 충북 청원군 강서면 송절리라는 곳에 이성화 장로가 교회를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교회(문암교회의 전신)로 환원하자 부임하여 섬기다가 다시 이성화 장로가 교회를 가지고 침례교회로 넘어감으로써 사임하였다. 얼마 있다가 1953년에 존 힐 선교사의 연락을 받고 서울에 올라가 마중 나온 존 힐 선교사의 차를 타고 도강증 없이 한강을 건너 장충동신학교에 입학하여 1년 반을 공부하였다. 1956년에 대전침례신학교에 입학하였으나, 식구가 일곱 명이나 되었으므로 학비와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학교에서 소개한 평택 서정리에 김은석의 큰 동생 집에서 서정리침례교회를 개척하였으며, 온양 온천침례교회를, 후에 장항교회를 1960년 졸업 때까지 섬겼다.

침례신학교를 졸업한 후 가족이 많아 받아 주는 교회가 없고, 가족부양도 문제인데다가 목회하면서 생활에 엄매이면 샅꾼 목회자가 될 것이라 믿어 목회를 그만 두었다. 그리고 나서 대전에서 기술자를 두고 시계방을 운영하면서 어깨너머로 기술을 습득하였고, 서울 남대문에서 노점상과 업자를 상대로 시계수리를 하던 중에 노동청이 시행하는 시험에 응시하여 시계수리1급자격증을 받았다. 1967년 성동 그리스도의 교회의 전신인

10) 지철희 목사의 누님 집. 당시 지철희는 12세 정도의 소년이었음. 후에 박점상이 전남 무안군 현경면 평산리 처가 마을의 정귀남 집사의 딸을 지철희에게 소개함.

11) 김은석 목사, 이신 목사, 창현 함태영 목사 등이 운영.

남산동 교회에서 장로안수를¹²⁾ 받고 재무로 시무하면서 그리스도(인)의교회들 장로회를 조직하여 총무를 맡아 보았다. 1982년에는 생활의 기반을 잡은 후여서 지온어린이집의 부속 교회에서 장로로서 무보수로 목회를 하다가 1983년 1월 남부 중앙 그리스도의 교회로 옮겼다. 남부중앙교회는 홍제 그리스도의 교회의 어떤 교인이 구입했던 것을 최윤권 목사가 재구입하여 교회가 지속되게 하였고, 후에 교회가 자금을 마련하여 최윤권 목사로부터 실비로 매입한 교회였다. 1983년 3월 14일 목사 안수를 받고 1950년대 김은석 목사의 신화신학 성경연구회에서 공부한 이원노(로) 목사와 함께 협동목사로 부임하여 은퇴할 때까지 담임하였다. 이때 명목상의 담임목사는 최윤권이였다.

박점상 목사는 서울기독교대학교 법인이사로 36년간 섬겼고, 동 대학교에서 2009년 8월 24일 선교학 명예박사 학위를 수여받았으며, 현재 한국기독교원로목사회 이사로 섬기고 있다. 사모 정규님과 더불어 혜숙 목사(전대웅 목사 사모, 방글라데시 선교사) 성희, 성숙, 혜자, 정숙, 정희, 남숙, 남희를 두었다.

3) 김교인 장로(1890-1970)

김교인(金敎人)은 김은석 목사를 모셨던 부강 오데골 장로교회의 장로였다. 민 선교사로부터 전도를 받고 한문성경을 읽고 깨우친 후에 전도인 활동을 하고 선교사로부터 생활비 보조금을 받다가 1936년에 부강으로 이사하여 양약방을 열었다. 오데골에는 김교인 장로가족과 김규상의 모친 구봉례 집사와 작은 어머니 정도가 모이는 장로교회가 있었는데, 그곳에서 예배를 인도하며 교회를 끌고 나갔다.

1944년 집안에 어려움이 있어 부인이 실의에 빠져 있을 때, 노회가 열려 참석하였다가 김은석 목사를 소개받아 1945년 가을에 담임목사로 모시게 되었다. 김은석 목사는 부임하자마자 100일 집회를 선언하고 시행하여 큰 부흥을 일으켰는데, 노회로부터 자제하라는 명령이 시달되었다. 이에 굴복하지 않자, 노회는 김은석을 제명하였다. 이 일로 김교인은 김은석, 정찬성과 함께 그리스도(인)의교회들로 환원하였고, 1946년에 부강 그리스도의 교회를 개척하였다.

대전 성화교회 오재건 장로의 <신앙체험기>에 의하면, 김교인은 대지 500평을 하나 남게 바쳐 부강교회를 짓게 하였으나 후대의 목회자들이 교회대지를 여러 명목으로 조금씩 매도하여 1976년경에는 147평만이 남았다고 한다. 이 대지를 김태수 목사가 미국으로 이민을 가면서 오재건 장로에게 관리를 위임하였고, 오재건은 관리에 어려움을 느껴 재단법인 크리스찬 밋손에 넘겨 관리하게 하였다.

김교인은 1956-57년경에 순복음교회로 이적한 것으로 보인다. 이 무렵에 김교인은 전남 함평군 함평면 석성리에 거주하고 있었다. 김교인은 최요한이 1946년 10월 전남 함평군 손불면 주포리에 개척하였다가 그 이듬해인 1947년에 함평면 석성리 청학동으로 옮겨 김교인 앞으로 등기된 땅 위에 세운 석성 그리스도의 교회를 순복음교회로 이적 시켰고, 추후 이 교회에 700평 땅을 바쳐 50평 예배당을 짓게 하였다. 이 때문이었

12) 이때 김규상 목사 안수 받음.

는지는 몰라도 김은석 목사의 성경통독메모에서 1956년 12월 13일 이후에 김교인과 석성리 청학동 그리스도인 집회소와 신생동 교회, 그리고 이들 교회들을 인도했던 노의수 집사(전도사)에 대한 언급이 모두 끊겼다.

순복음교회로 이적할 당시 김교인은 이미 서울로 거주지를 옮긴 상태였다. 김은석 목사의 1956년 7월 16일(월)자 메모에 의하면, 김교인은 서울시 서대문구 대현동 산18번지에 살고 있었다. 서울에서 그는 여의도순복음교회를 섬겼으며, 1970년에 숙한으로 신촌교회에서 소천 하였다. 사모 김정렬로부터 김재순 목사, 김태수 목사, 김철수 목사, 김복수 권사(2021년 4월 11일 별세, 남편 엄진섭 장로), 외손자 엄규장 목사, 엄규응 목사, 엄규서 목사, 엄규석 목사, 엄규남 목사를 두었다.

큰 아들 김재순(1922-1958) 목사는 해남, 영광, 함평, 금동(광주)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과로로 쓰러져, 김은석 목사의 기록에 의하면, 1958년 2월 26일 광주에서 소천 하였다. 김태수 목사는 김은석 목사의 신화신학 성경연구회에서 공부하였고, 1955년 3월 3일 존 힐이 교장으로 있던 서울성서신학교를 졸업하였으며, 50년대 신화신학 성경연구회와 60년대 한국성서신학교에서 교수(통역)를 역임하였다. 70년대 중반에 미국에 이민하여 LA에서 그리스도(인)의 교회를 섬겼다. 김철수 목사, 외손자 엄규장 목사, 엄규응 목사, 엄규서 목사, 엄규석 목사, 엄규남 목사도 미국 또는 한국에서 그리스도(인)의 교회를 섬겼다.

4) 신현창 장로

신현창 장로는 의사였다. 상해로 건너가서 독립운동을 하다가 예수를 믿게 되었고, 일정 때 고국에 돌아와 이북 철산리에서 병원을 개업하였다. 철산에서 진료를 할 때에 늘 형사들이 와서 감시했다고 한다. 이유는 신현창이 독립운동을 하다가 왔고 예수를 믿기 때문이었다.

신현창은 병원에서 진료하면서 학비를 지원하여 많은 분들이 신학공부를 마칠 수 있도록 하였다. 신현창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 신사참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병원 일을 지속하기 어려워 청주로 내려와 이한상 집사가 경영하던 양약방 옆에 병원을 차려 진료하면서 기독교라는 간판을 붙였다. 한편 부강에서는 김규상 목사가 12세 때에 부친께서 돌아가심으로 집을 팔려고 내놓았는데, 신현창이 그 집을 구입하여 부강으로 이사하여 병원을 개업하였다.

신현창은 부강에서 김은석 목사를 만나 신화신학 성경연구회를 조직하였다. 그러던 1945년에 몸이 약간 불편하여 수양 차 충남 논산군 충곡리에 왔다가 친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신정철의 집에서 모임을 갖게 하였다. 1950년에는 교회사택을 지었다. 그 후 장로로서 또 신화신학 성경연구회의 강사로서 일하다가 1964년에 충곡리 그리스도의 교회의 목회자로 부임하여 계시다가 별세하였다.

5) 정찬성 목사(1913.05.06~1957.04.25)



정찬성 목사

정찬성 목사는 충북 괴산군 불정면 외령리 반능(半陵)이 고향이다. 친구인 이학재(감리교 장로)의 전도를 받고 기독교인이 되었다. 그는 우체국에 근무하는 집배인이었다. 낮에는 편지를 배달하고 저녁에 교회를 다녔다. 일제가 신사참배와 동방요배를 강요하자, 정찬성은 신앙에 어긋난다며 가미사마에게 절하는 것을 회피하였다.

그러던 어느 겨울날 자전거를 타고 언덕길을 내려가다 미끄러져 절벽 아래로 떨어졌고, 다리가 얼음 속에 박혀 부상을 입게 되었다. 치료를 받기위해 청주 모 병원에 입원하여 있는 동안 병원에서 성경책을 주며 읽도록 권하였다. 마침 교회를 다니고 있던 터라 기도하기를, “내가 여기서 병을 낫게 되면 사도 바울과 같이 끝까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고 했는데, 기도한 후에 정말 다리가 낫게 되어 김용선 자매와 결혼까지 하였다. 결혼하고 나서야 김용선은 정찬성이 다리를 조금 전다는 것을 알았다.

이후 정찬성은 신사참배를 거부하며 노방전도를 다녔는데, 왜경들이 늘 추적하였고, 김상호 목사의 증언에 따르면, 전통을 중시하는 집안 어른들의 핍박도 상당히 심했다고 한다. 그는 믿는 사람들(목사들)의 고발로 체포되어 청주 남조동, 대전 신탄진, 충주로 이송되면서 많은 고문을 당하였다. 감옥에서 나온 후에는 처형이 사는 만주로 가서 복음을 전하였다. 만주에서는 산에 올라 초근목피 하였고, 구두담이 통을 만들어 왜경의 눈을 피해가며, “일본의 가미사마를 믿지 말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라.”고 복음을 전하였다. 이 무렵에 만주 길림성에서 김은석 조사(전도사)를 만났다.

해방 후 고향인 충북 괴산군 불정면으로 돌아와 충북 괴산군 불정면 삼방리 연못골 자택에서 반능교회를 하다가 적산건물인 사립학교를 구입해서 교회를 시작하였다. 이 무렵에 만주에서 만났던 김은석 목사와 연락이 닿아 부강에서 해후하였다.

정찬성 목사는 고려통신신학을 수료하였고, 1946년에 시작된 초창기부터 신화신학 성경연구회에서 공부하였다. 1948년에 신탄진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6·25전쟁을 만났다. 전쟁 중에 김정만 목사(정찬성을 스승으로 생각함)가 살던 충북 청원군 북이면 송정으로 피신을 하였는데, 1950년 겨울에 북한군에 잡혀 밤새 고문을 당하였다. 북한군은 예수를 믿지 않으면 놓아주겠다고 했지만, 이에 굴복하지 않자 밤새도록 총대로 구타하였다. 아침에 북한군은 예수 믿지 않을 사람은 이쪽으로 나오라고 말하고, 남은 사람들을 향해서 총으로 난사하였는데, 당시 정찬성은 기도를 하느라 머리를 들지 않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기 때문에 총알이 살짝 빗나가면서 구사일생하였다. 총알 세례를 받고 난 후, 눈을 뜨고 자기 몸을 꼬집어보니, 죽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다.

정찬성 목사는 충청지방에 7-8군데 교회를 세웠다. 해방 후 고향인 충북 괴산군 불

정면 외령리에 돌아와 외령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웠고, 1948년에 예배인도 차 심방하던 충북 충주시 노은면 수릉리 동막교회(현 시골 그리스도의 교회)가 무소속인 것을 알고 그리스도의 교회로 환원시켜 1949년 4월부터 1950년 6월까지 시무하였으며, 1951년에는 김은석, 최춘선과 함께 충북 충주시 동량면 조동리의 조선기독교교회를 조동(현 동량제일) 그리스도의 교회로 환원시켜 건지부락 산 밑으로 예배당을 이전하여 건립하였다.

그밖에도 소태 그리스도의 교회, 삼방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웠다. 정찬성은 1951년 5월 15일 충남 부여군 규암면 합송리 3구 마을에 이홍식 전도자가 조남철의 가정에서 1950년 3월 19일에 시작한 그리스도의 교회에 부임하여 10월까지 1대 목회자로 섬기다가 이신에게 넘겼다. 이신은 그곳에서 김은석, 함태영과 함께 광주에서 하던 신학교를 이어갔고, 정찬성도 참석하여 공부하였다. 정찬성은 이 교회에 부임하기 위해서 약 400여리 떨어진 곳에서 오촌 조카와 가족들을 데리고 간단한 짐만 손수레에 싣고 14일 걸려 이사하였다. 그곳으로 가게 된 동기는 한 독지가로부터 수천 평의 땅을 헌납 받아 5촌 조카(정석기 장로)로 하여금 농사를 짓게 하고 자신은 교회를 시무하기 위함이었다.

정찬성 목사는 충남 부여군 합송리 신학교에서 있었던 성령론 논쟁 때 그리스도(인)의교회들을 탈퇴하여 1953년 4월 8일 광주에서 개최된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창립총회 때 김상호와 함께 (추측컨대 최요한도 함께, 김교인은 그보다 3-4년 후에) 이적하여 1955년 4월 27일에 목사안수를 받고 기하성의 제1호 목사가 되었다. 이 무렵에 이신 목사도 부여 합송리를 떠났고, 김광수 목사/장로가 1954년 8월 7일 합송 그리스도의 교회에 부임하여 1956년 12월 30일까지 섬겼다.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로 이적한 정찬성은 충주순복음교회의 전신인 오순절 충주교회를 개척하였고, 1957년 2월 15일에는 기하성 본부의 후원으로 신탄진 강희천의 집을 매입하여 삼정순복음교회를 개척하였으나, 삼남 정형기 목사의 증언에 의하면, 왜정 때 신사참배 거부로 매를 맞았던 것이 병이 되어 복막염으로 4월 25일에 별세하였다. 별세일자는 김은석 목사의 <성경통독메모>에 의존하였다. 정찬성 목사는 김상호 목사와 함께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회년 50인 인물'에도 올랐다.

슬하에 인자(목사 사모), 용기(공주 탄천순복음교회 목사), 형기(순복음예광교회 목사), 인순(집사)과 동순(일본 고베순복음교회 사모)을 두었다,

6) 김상호 목사(1922-2007.11.24)

장로교회에서 집사로 섬기다가 김은석 목사를 만나 그리스도(인)의교회들로 환원하였다. 신화신학성경연구회에서 말씀을 배우던 중 김은석 목사의 권유로 1949년 서울 필운동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강좌를 열었던 한국기독교성서신학교(서울성서신학교)를 김은석 목사와 함께 다녔다. 김상호는 이곳 교수들(존 힐, 성낙소, 최요한, 백낙중)의 다른 가르침은 다 좋게 받아들였으나 성령론이 불만스러웠다. 6·25전쟁으로 신학교가 문을

단자, 부강에 내려와 신화신학성경연구회에서 성령론 연구를 계속하며 복음을 전하였다.



김상호 목사(2007년 10월 6일 오산리침식기도원)

김상호 목사의 이름은 단 한 차례만 등장하였다. “1957년 2월 23일(토)은... 아침식사 전은 김상호 목사와 담화함.” 그러나 김상호 목사는 이미 그리스도의 교회를 탈퇴하여 광주에서 개최된 1953년 4월 8일 하나님의 성회 창립총회 때 정찬성 목사와 함께 (추측컨대 최요한도 함께, 김교인은 그보다 3-4년 후에) 이적하여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회년 50인 인물’에 올랐다.

<순복음가족신문>에 의하면, 김상호 목사는 그리스도신학대학교 신학과를 졸업하였고, 충청도 지역에 40여 교회를 개척하였다. 남원순복음교회, 청주순복음교회, 부산순복음교회를 담임하였으며, 여의도순복음교회 교무국장, 교육처장, 교무처장, 오산리최자실 기념금식기도원 주임목사, 엘림복지타운 원목으로 시무하였다. 김상호 목사는 2007년 11월 24일 별세 하였다.

7) 만교 최춘선 목사(1921-2001.09.08)



맨발의 성자, 만교 최춘선 목사

그는 30여년을 맨발로 거리와 지하철에서 전도하다가 수원행 전철 안에서 소천 하였다. 그는 지하철역에서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쳤다. “예수 십자가는 생명의 젖 줄기, 평화의 젖 줄기, 그래서 십자가 젖 줄기 하나, 교회 하나, 교단은 여러 개가 있을지라도 교회는 하나다!”

최춘선 목사는 김은석의 제자로서 김포 그리스도(인)의 교회를 개척 시무하였고, 사회사업가였으며, 30여년을 맨발로 거리와 지하철에서 전도하다가 수원행 전철 안에서 별세하였다.

최춘선은 말년에 지하철역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쳤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자비의 초대...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의 초대...”

예수 십자가는 생명의 젖 줄기, 평화의 젖 줄기, 그래서 십자가 젖 줄기 하나, 교회 하나, 교단은 여러 개가 있을지라도 교회는 하나다!”

(1) 김은석 목사와의 관계



김포 그리스도의 교회(1957년, 최춘선 목사)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초기역사』¹³⁾ 131쪽에 의하면, 최춘선은, 1949년 존 힐 선교사 가족이 한국에 돌아왔을 때, 김포 그리스도의 교회를 시무하고 있었다. 존 힐도 1972년에 쓴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선교 역사>에서 이 무렵에 김은석의 영향으로 김포에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진 점을 인정하였다. 1951년에는 김은석, 정찬성과 함께 충북 충주시 동량면 조동리의 조선기독교교회를 조동(현 동량제일) 그리스도의 교회로 환원시켰다.

최춘선의 이름은 김은석의 성경통독메모(1953-58)에 14회 등장하였다. 최초의 언급은 1953년 8월 24일자로 되어 있다. 이 날 최춘선은 김은석, 이복춘, 이시봉과 함께 충북 충주시 남주동 2구 350번지 그리스도의 교회를 시무하는 정찬성 전도자를 상봉하였다. 1957년 6월 6일에는 송안성과 함께 김은석 목사의 대전 자택에 머무른 후 7일 아침에 서울로 올라갔다. 1957년 7월 11일(목) 오후에는 김은석이 경기도 김포군 양서면 송정리 만교 최춘선의 자택에 도착하여 저녁에 김포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스가랴 7-8장을 봉독하였다. 13일(토)에는 김은석과 함께 경기도 부천시 오정면 도당 원경선의 자택에 머물렀다. 1957년 8월 26일에는 편지를 받고 최춘선이 김은석의 대전 자택으로 내려왔는데, 김영원, 김영숙, 이종만, 설하운, 태일리, 박은병도 참석한 자리였다.

최춘선의 이름은 김은석의 통신 및 신화신학성경연구회 명단에 빠짐없이 들어 있다. 김은석은 1958년 5월 5일에 집중강의 일정을 동료들과 학생들에게 통보하였는데, 이 통보를 받은 이들 가운데 최춘선이 포함되어 있다. 또 1958년 7월 10일부터 소년성경학과가, 8월 1일로 9월 10일까지는 집중성경공부가 있다는 통신자 명단에도 최춘선의 이름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김은석 목사가 1960년도에 연하장을 보낸 자들의 명단과 양녀 김명순의 혼인 청첩자 명단에도 최춘선의 이름이 들어 있다.

또 『목포그리스도의 교회 50년사』¹⁴⁾ 319쪽에 실린 김정만 목사의 증언에 의하면, 최춘선은 부강교회 김은석에게 쌀가마를 직접 가져다주기도 하였다. 이토록 최춘선 목사는 김은석 목사와 매우 긴밀한 관계를 맺었던 그리스도(인)의교회들의 목회자였다.

(2) 무소유와 희생의 삶

최춘선은 겸손하고 사랑이 많은 목회자였다. 어린아이들에게도 언제나 존댓말을 하였고, 거리로 내몰린 사람들을 집으로 초대하는 등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실천하였다.

13) 김찬영,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초기역사: William D. Cunningham의 생애(1864-1936)를 중심으로』(대전: 한성신학교, 1991), 131.

14) 목포그리스도의교회 교회사편찬위원회, 『목포 그리스도의 교회 50년사(1956-2006)』(광주: 도서출판 한림, 2006), 319.

최춘선은 김포공항으로 들어가는 큰 길에서 인천 국도까지 수십만 평의 땅을 유산으로 받았던 거부였고, 자동차를 다섯 대나 소유하였었다. 그러나 6·25 직후 길에 떠도는 노숙자들과 거지들을 집으로 데려와 거두기 시작하였고, 국가나 단체의 보조 없이 고아들을 길러냈다. 또 유산으로 받은 땅을 실향민과 가난한 이들에게 나눠주었다. 도와달라고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땅을 조금씩 떼어주고서 남은 건 단지 3천 평뿐이었다. 땅은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믿었기에 등기도 하지 않았다. 그걸 알고 누군가 그 땅을 자기 앞으로 등기해 남은 땅마저도 다 빼앗겨 버렸지만 힘든 표정 한번 짓지 않고 찬송가를 부르면서 수백 명이나 되는 고아들을 데리고 서른 번도 넘게 이사를 다녔다.

내일 아침 먹을 쌀만 남았을 때도 누가 와서 먹을 것이 없다고 하면 그마저도 퍼주었다. 아내가 “우리 아이들은 무엇으로 먹이나”고 걱정하면 “성경에 하나님이 다 먹이신다고 기록되어 있다”면서 달랬다. 새 옷을 사다 드리면 밖에 나갔다 들어오실 때 다 떨어진 헌옷으로 바꿔 입고 들어오고, 심지어는 “바울아(아들) 너는 따뜻한 옷이 또 있지?”라고 말하며, 아들의 잠바들도 모두 나눠줬다.

최춘선 목사는 독립유공자였기 때문에 도장하나만 찍으면 증손자까지 4대가 학비지원권을 받으며 경제적으로 안정을 찾을 수 있었지만, 보상을 받기 위해 독립운동을 한 게 아닐 뿐 아니라, 나라가 반쪽인데 그 돈을 받을 수 없다며 끝까지 도장을 찍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춘선은 5남매를 목사와 교수 등으로 길러냈다.

(3) 맨발의 전도자

최춘선은 일본 와세대 대학을 나와 5개 국어를 할 줄 아는 수재였고, 가가와 도요히코와 우치무라 간조로부터 영향을 받았으며, 일본 유학시절 군사훈련을 거부하다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 만주로 가서 광복군의 섭외부장으로 활동하였다. 해방 전후에 김은석을 만나 신화신학 성경연구회에서 공부하였으며, 김포 그리스도(인)의 교회를 개척하였다. 추측컨대 20여 년 가깝게 고아들을 돌보다가 1970년 초 50세 무렵에 모든 사역을 접고 문서선교와 노방전도에만 전념한 것 같다.

최춘선이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된 데는 2003년부터 ‘팔복’ 프로젝트를 추진하던 김우현 감독이 맨발로 길거리 전도를 하는 할아버지 최춘선을 우연히 알게 되어 그분의 일상을 다큐로 만든 동영상을 인터넷에 무료로 공개한 이후부터이다.¹⁵⁾

광복군 섭외부장을 지냈던 최춘선은 대한민국이 분단 상태에 있으므로 아직 완전한 독립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보았다. 따라서 그는 1970년 초 50세 무렵에 “남북통일이 되기 전엔 절대로 신발을 신지 않겠다”고 결심하였다. 그는 지하철에서 젊은이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쳤다. “미스코리아 유관순, Why Two Korea? 미스터코리아 안중근, Why Two Korea?” 이 외침은 유관순과 안중근과 같은 사람이 참 한국인이며, 그런 이들만 있다면, 왜 두 개의 한국이 있겠느냐는 의미였다고 한다.

15) 김우현, 『김우현 다큐북 팔복 I-맨발천사 최춘선: 가난한 자는 복福이 있나니』(서울: 규장, 2004).



최춘선 목사의 묘(대전 현충원 제2애국지사 묘역)

고, 별세하던 바로 그 날도 1호선 수원행 열차에서 전도하던 중에 의자에 앉은 채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으며, 대전 현충원 제2애국지사 묘역에 안장되었다.

아들 최바울 목사의 증언에 의하면, 최춘선은 아들의 결혼식 때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신발을 신었고, 버스기사에게 떠밀려 골반 뼈가 부서졌을 때도, 예수쟁이라는 핏박을 받았을 때도, 발바닥에 유리조각이 박혀 피가 흘렀을 때도 결코 전도를 멈추지 않았다. 최춘선은 2001년 9월 8일 80세의 일기로 별세하던 순간까지 30년을 넘게 맨발로 다니며 전도하였다.

8) 창현 함태영 목사(1914.5.24-1983.11.28)



창현 함태영 목사

창현 함태영은 부친 함봉표의 항일의병전투참가로 왜경에 쫓기고 옥고까지 치름으로써 가세가 기울고 몇 차례 이사를 다녀야 했던 환경에서 청소년시절을 보냈다. 그는 20대 초반에 부친의 유훈, “生則義士 死則義鬼”(살아서는 항일의사가 되고, 죽어서는 항일의귀가 된다)에 따라 항일운동을 꾀하였고, 목사가 된 이후에는 “生則福音 死則麥粒”(살아서는 복음전도자가 되고, 죽어서는 밀알이 된다)의 신조로 도시보다는 농촌, 난민촌, 빈민촌에서 목회자로, 교육 사업가로, 신약성경교회 운동가로 일생을 헌신하였다.

함태영은 전남 장성에서 태어나 순천에서 부친이 세운 사립학교에서 초등학문을 배운 후 17세가 돼서야 비로소 보통학교를 마쳤다. 18살에 부산으로 건너가 고학으로 중학교과정을 21살에 마쳤고, 이 기간에 공사장에서 미장, 조각, 조각, 설계 등을 배워 건축 기술자가 되었다. 같은 해 일본군 징용을 피하여 만주에 머물다가 이듬해인 1936년 22세 때 담양선 철도 부설작업 한국인 조장을 맡았는데, 칼을 찬 일본인 조장이 한국인들을 멸시함으로 대항하여 맞서다가 일본인 조장이 빼든 칼에 함태영이 턱에 부상을 입었고, 이를 방어하던 함태영의 팽이에 일본인이 맞아 죽는 불상사가 일어났다. 담양사건은 동아일보에 보도된 사건으로써 정당방위를 인정받아 무죄판결을 받았으나 일본인들이 복수를 하려고 함으로 피신하여 신의주로 갔다. 이때 항일운동의 일환으로 학교동창 1명과 함께 압록강 철교를 절단하려다가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1937년(23세)에 평안북도 신의주에서 선천으로 옮겨 기독교인 정용옥을 만나 결혼하였고, 장모 이봉녀 권사의 권유로 예수님을 믿고 이듬해 24살 때 세례를 받았다. 1941년 27세 때에는 신사참배를 거부하여 경찰서에 감금되었으나 탈출 후 만주에서 숨어 지내다가 1944년(30세)에 고향 순천에 혼자 내려와 몸을 숨겼다. 그러나 발각되어 투옥되었다가 8·15광복 때 석방되었다. 함태영은 곧바로 순천고등성경학교에 입학하였고, 장로교 해룡면교회 전도사로 사역하다가 사재를 처분하여 전남 승주군 별량면에 장로교회를 개척하였다.

1947년(33세)에 순천성경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서울 마포구 도화동으로 온 가족이 이사하여 월남난민촌에 임시로 기거하면서 강순명(교역자회) 목사를 도와 천막학교에서 교육과 전도에 힘썼다. 이때 김은석의 가족은 아현동에 거주하였는데, 그의 양자 김성철과 함태영의 장자 함동진이 이 천막학교에서 함께 공부하였다. 이런 이유로 이듬해 10월 19일에 발생한 여순반란사건을 피할 수 있었다. 이 무렵 마포가 내려다보이는 도화동산에 대지를 마련하여 주택을 짓고 점포를 운영하면서 종친인 함태영(咸台永)¹⁶⁾ 목사가 학장으로 재직하던 조선신학교(현 한신대)에 입학하여 장로회신학교(현 장로회신학대학교)에서 2년간 공부하였다. 장로회신학교는 1947년에 조선신학교에서 공부하던 신학생 51명이 김재준 목사의 신학입장에 반발하자 총회가 조선신학교에서 나온 학생들을 중심으로 새로 시작된 신학교이다. 장로교는 기존세력인 통합파에서 1951년에 고려파(고려신학교)와 1953년에 기장파(조선신학교)가 떨어져 나갔다.

함태영은 이 무렵에 북에서 월남한 장로교 재건파신자 정희건을 만나 사귀고 후 학업과 생업을 위해서 함께 나무젓가락 공장을 운영하기도 하였다. 두 사람은 함께 신약성경교회 운동에 매료되어 그리스도(인)의교회들로 환원하였고, 서울성서신학교(교장 존힐 선교사, 현 서울기독교대학교)에 편입학하여 1955년 3월 3일 제1회로 조국형, 김봉석, 성수경(성낙소 목사의 아들), 김태수(60년대 한국성서신학교 교수역임), 김현숙(60년대 한국성서신학교 이사 역임), 이종윤, 유현성, 정희건(교역자회 소속), 변승택, 이흥미, 최병식과 함께 졸업하였다.

함태영은 1950년(36세)에 6·25전쟁이 터지자 홀로 고향인 전남 승주군 외서면 장산리로 피신하였다가 공산주의자인 초등학교 친구의 밀고로 붙잡혀 옥고를 치렀으나 선친과 형제들의 도움으로 몰래 풀려나 숨어 지냈고, 가족들은 서울 함락 2주 후에 별도로 피신하였으나 사모 정용옥이 승주군 해룡면으로 친정 식구들을 찾아 나섰다가 공산주의자들의 검문에 걸려 투옥되었다가 탈출 후에 가족이 모두 안전한 부산으로 피신하였다. 부산에서는 1951년 2월 9일 기독교신보사가 주관이 되어 조직된 기독교선무원으로 발탁되어 국방부정훈국 산하에 파견되어 군목으로 종군하였다.

함태영은 1951년 3월에 전남 광주시 방림동의 서병렬(徐炳烈) 목사의 집으로 옮겨 거주하였는데, 이곳에서 이신(李信)을 만나 사귀게 되었다. 이신은 감리교신학교를 마치고 1950년에 전의 감리교회에서 목회하다가 6·25전쟁으로 고향 돌산에 피신하여 지내던 때였다.

16) 심계원 원장 및 대한민국 부통령 역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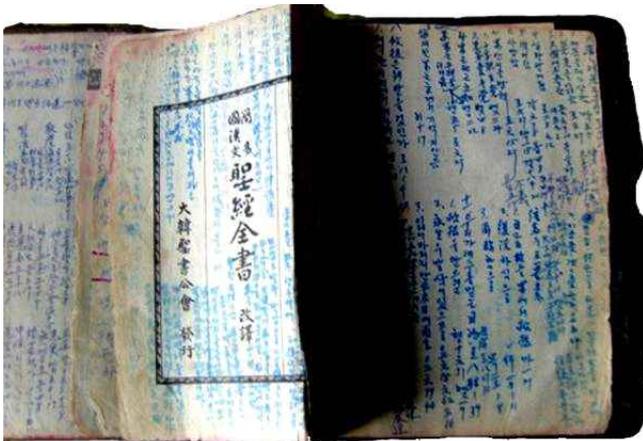
광주 학동에 창틀까지 축조된 상태에서 6·25전쟁으로 중단된 큰 교회당 건물이 있었는데, 이곳에서 각지에서 모여든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그리스도(인)의교회들 신학공부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김은석의 신화신학 성경연구회에서 공부하던 전라지방 젊은이들과 통합하기에는 장소에 문제가 있었다. 이에 함태영은 1951년 5월에 광주 사직동공원 및 방송국 입구에 사재를 처분한 돈과 부친의 지원금과 영광의 임모 장로의 헌금으로 일본 적산가옥 2층을 매입하여 광주 그리스도의 교회를 개척하였고, 이 건물에서 그리스도(인)의교회들 신학강좌를 개설하였다. 김은석과 김태수의 가족들도 같은 건물에 입주하였다. 의술을 가진 함태영의 셋째 동생 함태중이 재정을 후원하였고, 김은석, 이신, 김태수 등이 교수로 섬겼다. 이 건물에 강순명 전도자가 1952년 7월 13일에 천혜 경로를 설립하였다. 이때 화가 지망생이었던 이신은 받침에 헬라어로 ‘로고스’ 글자를 삽입한 ‘메노라’(일곱 가지 등대) 문양과 교명을 새긴 그리스도의 교회 신학교(신화신학 성경연구회) 현판을 제작하였다. 10여년 후 이신은 대전 한국성서신학교(한성신학교)의 현판도 동일한 모양으로 제작하였다. 그리고 동년 1951년(37세)에 김은석의 집례로 이신, 최요한, 장주열(최요한의 동서), 김재순(김교인 장로의 아들)과 함께 그리스도(인)의교회들 목사로 안수를 받았다. 또 함태영은 6.25전쟁 중에 통행의 제한을 받는 젊은 신약성경교회 전도자들을 위해서 종군당시 사귀었던 미8군 군목을 찾아가 통행증에 사인을 받아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도움을 주었다.

함태영은 동년(1951) 가을에 충남 논산군 부적면으로 이사하여 충곡리 그리스도의 교회와 신교리 그리스도의 교회(현 금성교회)를 개척하였다. 동년(1951)에 이신도 정찬성이 1951년 5월 15일에 부임하여 10월까지 제1대 목회자로 섬긴 합송리 그리스도의 교회(교역자회)로 이주하여 광주에서 운영하던 신학교(신화신학 성경연구회)를 이곳에 개설하였고, 김은석, 함태영, 이신이 교수로 수고하여 김확실, 정찬성 등이 배출되었고, 환원신학 잡지, <로고스>를 발행하여 전국 그리스도(인)의교회들에 배포하였다.

함태영은 1952년 11월 15일에 충남 논산군 부적면 신교리 마을회관을 빌려 복음국민중학교를 설립하였다. 함태영의 가족은 복음중학교 관리와 교사들의 식사제공문제로 거소를 충곡리 교회에서 신교리 교회로 옮겼다. 함태영의 셋째 동생 함태중은 운영후원자로, 막내 함태욱은 영어 강사로, 사모 정용옥은 교사들의 식사제공과 세탁 등으로 헌신하였다. 함태욱은 후일 서울성서신학교를 거쳐 한국성서신학교를 나와 여러 교회들에서 목회하였다. 복음국민중학교는 후일에 창현의 후배 겸 제자인 이춘식 목사가 인수하여 대명중학교로 개명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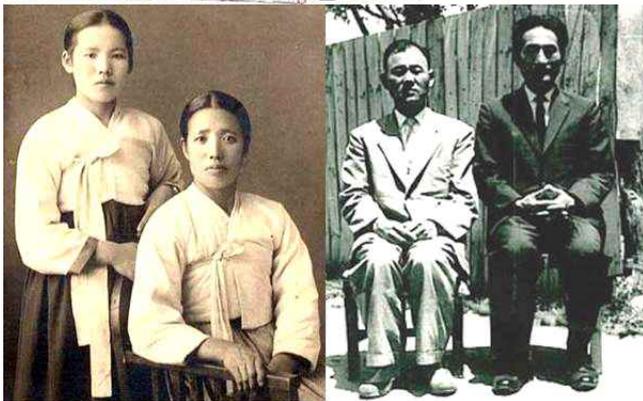
함태영은 1953년(39세)에 부친 송암 함봉표 지사(음력 3월 24일)와 사모 정용옥(7월 13일)을 사별하였다. 함봉표 지사는 유림에 속했으나 맏아들 함태영의 목회활동을 물심양면으로 도왔으며, 사모 정용옥은 모친과 함께 함태영을 예수님께 인도하여 목회자가 되게 하였고 영양실조와 병고로 32세에 요절하기까지 헌신적으로 뒷바라지 하였다. 당시의 궁핍했던 생활을 함태영이 남긴 요약설교지가 각종 이면지, 즉 경리장부, 요금고지서, 영수증, 전단지, 캘린더, 전보지, 결혼청첩장 등이었던 것에서 엿볼 수 있다. 사모가 눈을 감는 날 함태영은 부여 귀암면 합송리 신학교에 가 있어서 임종을 보지 못했

다. 사모는 장남 동진에게 “내가 죽은 후에 동생들을 잘 돌보고 아버지를 극진히 모셔라”고 유언으로 당부하였고, 고요히 찬송을 부르며 하늘나라로 가셨다. 동년 1953년 8월 4일 존 힐과 통역 최순국이 신교리교회와 복음중학교를 방문하였다. 이 시기에 그리스도의 교회 신학교와 복음중학교를 물질로 크게 후원하던 함태중이 중병으로 사경을 헤맸었고, 함태영은 경기도 광주군 분원리 소재 송실중학교의 교장과 교목을 맡아 이사하였다. 존 힐은 이신과 함께 송실중학교를 찾아와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함태영은 동년 11월에는 서울 마포구 도화동산의 주택을 김모 여전도사에게 기증하여 도원 그리스도의 교회의 출발점이 되게 하였다.



1955년(41세) 3월 3일에 서울성서신학교(현 서울기독교대학교)를 제1회로 졸업하였다. 이 무렵에 함태욱도 서울성서신학교에 입학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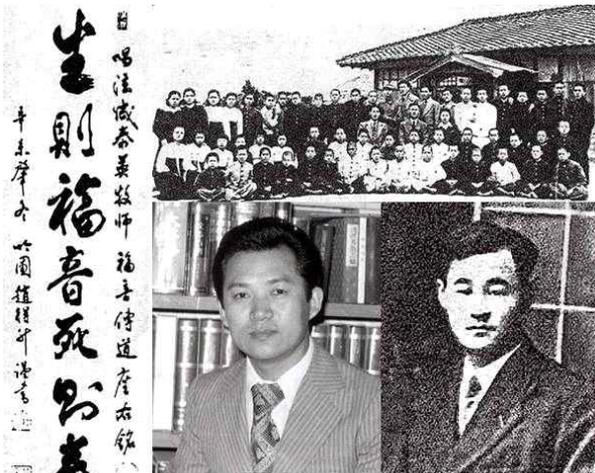
1957년(43세)에 전북 이리로 주거를 옮겨 교회개척장소를 모색하였으나 마땅한 곳이 없어, 주거지를 전주로 옮겨 금암동에 주택을 지었고, 인후동 반공포로 정착촌의 주택을 매입하여 전주 그리스도의 교회를 개척하였으며, 겸하여 정착촌 의무실을 개설하였다.



1958년(44세)에는 금암동의 주택을 매각하고, 전북 완산군 용진면 소양리(현 전주시 소재)에 대지 200평에 건평 100여 평의 건물을 매입하여 용진 그리스도의 교회를 개척하였고, 완제품 약종상을 차려 원광대학교에 다니던 장남 동진이 군입대할 때까지 운영하였다. 함태영은 자신보다 13세나 아래인 이신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자주 초빙하여 부흥집회를 개최하고 침례를 베풀며 목회사역을 협의하였다.

1960년(46세)에 청주에서 양로원을 운영하며 교회를 개척하였다. 1962년(48세)에는 목회를 쉬며 시험을 받았다. 대전시 가오동 천변(川邊)에 판자로 움막을 짓고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서 시멘트블록 공장을 운영하며 노동에 시달렸고, 갓 제대한 동진이 작업을 도왔으나 경영이 부실하였다. 이 무렵 타 교단으로부터 유혹이 있었으나 물리치고 신앙노선을 지켰다.

1964년(50세)에 충북 부강 그리스도의 교회와 남일면 방서리 그리스도의 교회를 담임하였다. 건축이 전문이므로 교회를 꾸미고 보수하는 일을 자주 하였다. 한 번은 교회



(좌) 창현 함태영 목사의 신조(생즉복음 사즉맥립: 살아서는 복음 전도자가 되고, 죽어서는 밀알이 된다); (좌하) 함동진(아동문학가), (우하) 함태중(복음 중학교 재정 후원자); (상) 복음중학교 설립기념사진 (1952년 11월 15일, 중앙 함태영 목사, 좌측 이신 목사), 함태영은 이 건물에서 신교리 그리스도의 교회를 개척하였다.

의 지분을 보수하다가 낙상하여 갈비뼈가 상하는 증상을 입기도 하였다.

1970년(56세) 1월 25일 장남 동진이 최윤권의 주례로 결혼하였고, 1974년(60세)에는 논산 대명중학교 설립 20주년 기념식에서 설립자로서 공로표창과 황금 메달을 부상으로 받았다.

1975년(61세)에 서울시 서대문구 홍제동 장자 동진의 집에서 이신, 구강서, 이종만, 조충연, 설하운, 함명덕, 임상규(이상 목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갑연을 가졌다.

1980년(66세)에 부강 그리스도의 교회와 방서리 그리스도의 교회에서의 목회를 마지막으로 노환(반신마비와 당뇨) 때문에 은퇴하였고, 1983년(69세) 11월 28일 충남 대전시 가오동에서 별세 하였다.

창현 함태영(唱滋 咸泰英) 목사는 “生則福音 死則麥粒”(살아서는 복음전도자가 되고, 죽어서는 밀알이 된다)의 신조로 도시보다는 농촌, 난민촌, 빈민촌 등지에서 목회자로, 교육 사업가로, 신약성서교회 운동가로 재물과 재능을 다 바쳐 헌신하였고, 남의 땅에 세운 시멘트 블록 움막과 낡은 찬송가와 성경책과 몇 권의 신학서적만을 남겼다. 이런 공로를 인정하여 2007년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75주년 기념대회 때 함태영과 장자 함동진에게 환원상(메달)이 각각 수여되었다.

창현 함태영의 부친, 송암(松庵) 함봉표(咸鳳表)는 항일의병전투에 참가하여 전공을 세운 독립지사로서 일제의 핍박을 피하여 전남 승주군 외서면 장산리에 정착한 유림에 속하였으나 맏아들 함태영의 목회활동을 물심양면으로 도왔고, 사모 정용옥은 친정 모친과 함께 함태영을 예수님께 인도하여 목회자가 되게 하여 궁핍했던 시절 불평 없이 남편을 헌신적으로 뒷바라지하다가 영양실조와 병고로 32세에 요절하였다.

함태영의 막내 동생 석비 함태욱(皙譬 咸泰昱) 목사는 서울성서신학교(현 서울기독교대학교)와 한국성서신학교(전 한성신학교)를 나와 창현 함태영 목사의 목회활동과 복음 중학교에 기여하였고, 장남 함동수 전도자(교역자회)가 시무한 청주 그리스도의 교회를 개척하고 동역하였다.

순동식 목사는 창현 함태영의 셋째 사위로서 복음중학교 출신이며, 한국성서신학교를 나와 대전과 홍성 등에서 목회활동을 하였다.

장산 함동진(長山 咸東振)은 함태영의 장자로 전북일보사 서무원, 시사통신 전북지사 무전사, 합동통신 전북지사 부무전사(副無電士) 등 주경야독으로 전주 공업 고등 기술 학교 무선통신학과를 졸업하고 원광대학교 법학과에 입학하였다. 서울성서신학교(서울기독교대학교)와 한국성서신학교(대전)를 각각 중퇴하고, 서울기독교대학 통신신학을 나와

서울 응암동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개척교회 전도 활동을 하였고, 1970년대에 문서전도의 일환으로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환원운동 본부’라는 이름으로 문서전도지를 저술하고, 서신회답도 하였으며, ‘신약교회’라는 연재물을 필경으로 작성하여 두 곳 교회의 주보에 제공하였다. 현재는 문인(시인, 아동문학가, 서예인, 한국문인협회 회원, 기독교문인협회 회원, 한국아동문학회 회원 등)으로서 작품 활동을 하고 있다.

함동진은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인)의교회들을 위해서 헌신하였다. 1991년 6월 11일(음력4월30일) <창현 함태영 목사 전기>를 작성하였고, 1993년 함태영 탄생 79주년에 수정 증보하여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사 연구에 기여하였다.

9) 이신 목사/신학박사(1927.12.25-1981.12.17)



이신 목사/신학박사

이신의 자녀들이 펴낸 『술리얼리즘과 영(靈)의 신학』¹⁷⁾에 의하면, 이신(李信, 1927-1981)은 전남 돌산 출신으로 그림그리기를 좋아하여 화가가 되는 것이 꿈이었다. 부산 초량상업학교(부산상고)를 나와 은행원으로 일하면서도 예술에 대한 탐구는 계속되었고, 이로 인해서 얻어진 ‘근원적인 것’에 대한 갈구는 마침내 그로 하여금 신학의 길을

걸게 하였다. 1945년에 결혼한 이신은 이듬해 1946년에 미술도구를 팔아 마련한 돈으로 감리교신학교에 입학하였고 1950년에 졸업하였다.

졸업 후 충남 전의에 전도사로 부임하였으나 6.25전쟁으로 고향에 피신했다가 이듬해 1951년 봄에 김은석이 인도하는 그리스도(인)의교회들 신학공부와 집회에 참석하여 성령의 역사에 감동을 받았고, 신약성경교회로 돌아가자는 신약성경교회운동과 일치운동에 공감하여 그리스도(인)의교회들로 환원하였다.

1951년 늦봄에 광주에서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교역자회가 조직되어 김은석이 회장으로 뽑혔고, 목사안수식도 있었다. 이때 이신도 장주열, 최요한, 김재순, 함태영, 김동열과 함께 그리스도(인)의교회들 목사로 안수를 받았다. 동년 5월에 함태영이 광주 사직동공원 및 방송국 입구에 있던 일본 적산가옥 2층을 매입하여 광주 그리스도의 교회를 개척하는 동시에 그리스도의 교회 신학교(신화신학 성경연구회)를 개교하였는데, 이때 이신은 교수로 섬기는 일을 처음 시작하였다. 또 이때 이신은 받침에 헬라어로 ‘로고스’ 글자를 삽입한 ‘메노라’(일곱 가지 등대) 문양과 교명을 새긴 그리스도의 교회 신학교 현판을 제작하였다. 10여년 후 이신은 대전 가장동의 한국성서신학교의 현판도 동일한 문양으로 제작하였다.

1951년 가을에 함태영목사가 충남 논산군 부적면으로 이사하여 충곡리 그리스도의 교회와 신교리 그리스도의 교회(현 금성교회)를 개척하였고, 이신 목사도 정찬성이

17) 이신, 이은선, 이경, 『술리얼리즘과 영의 신학』(서울: 동연, 2011).

1951년 5월 15일 부임하여 10월까지 제1대 목회자로 섬긴 합송리 그리스도의 교회로 이주하여 광주에서 운영하던 신학교를 옮겨와 김은석, 함태영과 함께 운영하였고, 환원 신학 잡지, <로고스>를 발행하여 전국 그리스도(인)의교회들에 배포하였다. 이 무렵에 이름을 이만수(李萬修)에서 이신(李信)으로 고쳤다.

이신이 부여 합송리 교회에서 목회할 때, 타 교단에서와 마찬가지로, 성령님의 특별한 외적 역사, 즉 사도들과 같은 특정인에게 주어졌던 신유, 예언, 방언 말함과 같은 특별한 은사들이 신약성경의 완성과 신약교회창립 이후에도 여전히 특정인에게 주어지고 있는가, 아니면 끊겼는가에 대한 견해차이,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세례의 본질이 신유, 예언, 방언과 같은 특별한 은사인가, 아니면 구원의 약속을 보증하고 인치시며 인도하시는 성령의 내주 동거하심인가를 놓고 목회자들 사이에 논쟁이 있었다. 이신을 포함하여 김은석을 추종하던 많은 이들은 전자, 즉 특별한 은사가 지속되고 있다는 성령론을 공유하였으나 선교사들과 성낙소를 비롯한 일부 목회자들은 후자 즉 특별한 은사가 끊겼다는 정통적이고 합리주의적인 성령론을 공유하였다. 이 문제는 부여 신학교에서만이 아니라, 서울 신학교에서도 지속되었다.

이 논쟁으로 인해서 정찬성은 그리스도(인)의교회들을 탈퇴하여, 1953년 4월 8일 광주에서 개최된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창립총회 때, 부강 교회를 잠시 맡았던 김상호와 함께 (김교인 장로는 그보다 3-4년 후에) 이적하여 1955년 4월 27일에 목사안수를 받고 기하성의 제1호 목사가 되었다. 이 무렵에 이신 목사도 부여 합송리를 떠났고, 김광수 목사/장로가 1954년 8월 7일 합송 그리스도의 교회에 부임하여 1956년 12월 30일까지 섬겼다. 최요한 목사도 이때 그리스도(인)의교회들을 떠나 1953년 초부터 유달 교회(순복음)를 개척하여 시무하였고, 1957년 9월까지 목포 복음교회를 담임하다가 1957년 10월 1일에 목포 그리스도의 교회를 개척함으로써 다시 환원하였다. 반면에 1960년대 중반에 최요한의 동생 최요열(순복음신학교 제1회 졸업)은 순복음교회로 다시 넘어갔다.

이런 일련의 문제로 부여 교회를 사임한 이신은 전남 영암 상월리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목회하다가 다시 상경하여 존 힐 선교사를 만나 신학교를 도와 일하면서 동역하였다. 이신은 1953년 존 힐과 함께 함태영이 교장 겸 교목을 맡아 옮겨간 경기도 광주분원 송실중학교를 격려차 방문하였다. 함태영은 동년 7월 13일에 사모 정용옥과 사별한 후 자신이 설립한 충남 논산 신교리 소재 교회와 복음중학교를 떠나 이곳으로 옮겨왔다.

그 후 이신은 충북 괴산에 있는 수리교회로 옮겨 예배당을 건축하였다. 이 무렵의 상황이 김은석의 성경통독메모(1953-58)에 나온다. 이신의 이름은 1954년에 2회, 57년에 11회 나오는데, 이신은 김은석과 함께 목포 유달 교회(순복음)와 본인이 시무하는 수리교회에서 신화신학 성경연구회 강좌를 열어 가르치고 있었다. 이신과 김은석은 1954년 6월 14일부터 최요한의 목포 유달 교회(순복음) 예배당에 '그리스도의 교회 성경연구처'라는 현판을 붙여 놓고 백일성경연구집회를 시작하였는데, 이틀 뒤 16일(수) 이신의 부친이 별세하였다. 1955년 2월 25일부터 6월 5일까지 수리교회에서 백일성경연구집회

가 있었고, 1957년에 8-9월에도 목포 유달 교회(순복음)와 수리교회에서 가르쳤다. 이신과 김은석 등의 헌신적인 노력과 우정으로 9월 집회 후에 최요한 목사는 그리스도(인)의교회들로 다시 환원하였다.

최요한 목사는 1946년 2월초에 김은석을 만난 이후로 1947년 7월에 영광 무영교회를 환원시키는 등, 전남 함평군 손불면 신흥리에 신흥 그리스도의 교회, 10월초에 전남 함평군 함평면 석성리에 석성(청학동) 그리스도의 교회(손불면 주포리에 세웠던 것을 이전), 1947년 1월초에 전남 무안군 현경면 평산리에 평산 그리스도의 교회,¹⁸⁾ 1948년 3월초에 광주 사동 그리스도의 교회, 1950년 전북 고창에 고창 그리스도의 교회, 1952년 1월초에 전남 목포시 남교동에 목포 그리스도의 교회를 개척하였고, 1951년 늦봄에 광주에서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교역자회로부터 동서 장주열, 김재순, 함태영, 이신, 김동열과 함께 목사 안수까지 받았던 최요한은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1953년 초에 목포시에 유달 교회(순복음)를 개척하였고, 1955년 9월 25일에는 목포 복음교회를 담임하였다. 그러던 최요한 목사는 1957년 8-9월에 김은석, 이신 등이 인도하는 집회들을 통해서 복귀하기로 마음을 확정하고 10월 1일 전남 목포시 대안동 11번지에 목포 그리스도의 교회를 개척하였다. 최요한 목사가 돌아와 오늘의 목포교회로 발전시킨 데에는 이신과 김은석 등의 헌신적인 노력과 우정과 신념과 확신의 공유(공감)가 있어서 가능하였을 것이다.

또 이신은 1957-58년에 1951년 광주에서 만나 교제한 함태영이 전주에 개척한 전주 그리스도의 교회와 용진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부흥집회를 열고 침례를 베풀었다. 함태영의 장손 함동진도 1958년 6월에 이신으로부터 침례를 받았다.

이신은 1959년과 60년 전반기에 부산문화방송을 통해서 매일 밤 10시에 방송설교를 내보냈다. 이때 행한 설교들을 모아 기독교문사를 통해서 1980년에 펴낸 책이, 『산다는 것, 믿는다는 것』¹⁹⁾이다. 1959년 초에 부산에서 버트 엘리스 선교사 부부와 조셉 세걸키 선교사 부부가 한국방송미션(Korean Broadcasting Mission)을 설립하고 부산문화방송(HLKU)에서 시간을 임대하여 매일 하루 두 번, 일주일에 세 시간씩 방송하였다. 이 방송의 설교자로 이신은 1958년 12월에 태일러 부부, 래쉬 부부, 여러 한국인 사역자들의 추천을 받아 채용되었다.

한편 전 부인 에스더 비반즈(Esther Beavans)의 가출로 1955년 한국을 떠났던 존 힐 선교사가 제인 키네티와 재혼 후 1959년 여름에 부산으로 입국하였다. 두 달간 알렉스 빌즈 가정에서 머물다가 대전으로 올라와 김은석, 심영진, 김태수 등과 함께 그해 12월 1일에 대전성서신학교를 지금의 대전 그리스도의 교회당에서 20여명의 학생으로 시작하였다. 이듬해인 1960년에 이신이 부산에서 교수진에 합류하였고, 교통편을 고려하여 학교를 대전역에서 가까운 선화교회로 옮겼다.

이신은 이후 서울 돈암동교회에 부임하여 목회하였고, 1965년 9월부터는 대한기독교 신학교(현 서울기독교대학교)에서 조직신학과 희랍어를 가르쳤으며, 교회를 사임하고

18) 1951년 음력 8월 13일부터 거주한 박점상 목사는 자신이 건축하여 개척하였다고 증언함.

19) 이신, 『산다는 것, 믿는다는 것』(서울: 기독교문사, 1980).

1966년 9월에 마흔 살의 늦은 나이로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다.

그림을 그려 학비를 조달하고, 고국에 있는 가족의 생계까지 짊어지는 고학 끝에 1967년 5월에 네브라스카(Nebraska) 기독교대학을 졸업하고, 8월에 드레이크(Drake)대학교 신학대학원에 입학하였다. 드레이크대학교를 한 해 동안 다니다가 1968년 9월 밴더빌트(Vanderbilt)대학교 신학대학원으로 옮겨 1969년 12월에 신학석사학위, 1971년 5월에 박사 학위를 받고 귀국하였다.

귀국직후 삼선동의 서울 그리스도의 교회에 부임했다가 사임하고 자신이 1958년 6월에 전주 용진교회 부흥회 때 침례를 베푼 창현 함태영의 장손 함동진과 함께 종로2가 한국기원 건물 강당에서 서울기독교회를 개척하여 예배를 드리다가 혜화동으로 옮겨 1973년까지 지속시켰다. 이때 함동진은 주보발행과 기타 문건을 필경 발행하였다. 이신은 또 월 2회씩 회원들이 순차적으로 돌아가며 주제를 발표하고 토의를 하는 ‘포이에티스트’라는 학술모임을 결성하고 이끌었다. 이 모임에 함동진,²⁰⁾ 강성기,²¹⁾ 김소영,²²⁾ 김응삼,²³⁾ 김태수,²⁴⁾ 방하식,²⁵⁾ 안광남,²⁶⁾ 안동수,²⁷⁾ 최승,²⁸⁾ 윤기열,²⁹⁾ 김송자³⁰⁾ 등이 참석하였다.

1975년 여름 명륜동 산동네의 무허가 집이 시에 의해서 헐리자 수리교회로 내려가 1978년까지 목회하다가 서울 원효로의 친척집에 머물렀고, 1981년 열악한 식사와 주거 환경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설교, 강의, 번역 등의 일을 강행하다가 병을 얻어 12월 17일 오산리 순복음 기도원에서 별세하였다.

이신은 1951년 이후 줄곧 1950년대에 김은석의 신화신학 성경연구회, 1960년대 전반기에 한국성서신학교(전 한성신학교)와 대한기독교신학교(현 서울기독교대학교)에서 가르쳤고, 목회와 방송선교활동을 겸하였다. 박사학위를 받고 귀국한 이후에는 이화여자대학교 기독교학과 강사(문화신학), 중앙신학교(현 강남대학교, 윤리학), 그리스도대학교(히브리어 및 신학), 대한기독교신학교(현 서울기독교대학교, 조직신학), 순복음신학교 등에서 강의하였고, 윤성범의 ‘한국종교사학회’의 연구위원으로 활동하였다. 저서로는 방송설교를 묶어 만든 『산다는 것, 믿는다는 것』이 있고, 번역서로는 니콜라이 베르자이예프(N. Berdyaev)의 『노예냐 자유냐』³¹⁾와 별세 후 변선훈 박사가 번역을 마무리 짓고 출판한 베르자이예프의 『인간의 운명』³²⁾이 있으며, 유고집으로는 『이신의 술리어리즘과 영의 신학』과 『이신 시집: 돌의 소리』³³⁾가 있다. 이밖에도 1974년 3월 25일자에 쓴

20) 서기, 일신제강주식회사.

21) 효광 그리스도의 교회 목사, 광주 및 부여 그리스도의 교회 신학교에서 수학.

22) 시인, 상록서점운영.

23) 호남정유주식회사 훈련과장.

24) 그리스도의 교회 목사.

25) 흥제 중앙 그리스도의 교회 장로, 중앙일보사 조사부 부장, 미국이민.

26) 철학인.

27)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28) 서울영어학원장.

29) 그리스도의 교회 목사, 후일 기독교대한복음교회로 이적.

30) 그리스도의 교회 목사, 미국이민.

31) N. 베르자예프, 『노예냐 자유냐』 이신 역(도서출판 인간, 1979).

32) N. 베르자예프, 『인간의 운명』 이신 역(현대사상사, 1984).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선언,’ 1980년에 출판된 『기독교대백과사전』에 실린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환원운동의 전개,’ 순복음교회 청년 선교지 <카리스마>에 기고한 ‘카리스마적 신학,’ ‘삶과 죽음,’ ‘이단이란 무엇인가’ 등이 있다. 공직으로는 1972년에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연합회 회장, 1979년 한국기독교신학회 회장을 각각 역임하였다.

이신 목사의 업적은 한국적 그리스도의 교회의 설립, 곧 성경이 가르치는 신앙과 교회의 원형태를 회복하여 한국적 토착화 그리스도(인)의교회들을 만들려고 한데 있다. 그는 설교 때마다 그리스도의 교회를 논하였고, 종이에 무언가를 끄적일 때면 항상 ‘근본’이라는 단어를 먼저 적어놓고 시작하였다고 전한다.

10) 김정만 목사(1927.5.20-2017.8.30)



김정만 목사

김정만 목사는 스스로를 정찬성과 김은석의 제자라고 말한다. 그의 이름은 김은석의 성경통독메모(1953-58)에 2회 나온다. 김정만은 1957년 11월 19일에 지철희의 결혼식을 위해서 전남 무안군 현경면 평산리까지 김은석, 지철희와 함께 갔다. 이듬해 1958년 5월 5일 김은석 목사는 집중강의 일정을 통보하였는데, 김정만은 통보자 명단에 포함되었다.

김정만은 부강 신화신학 성경연구회 초기에 공부하였고, 정찬성 목사로부터 침례를 받았

다. 김정만은 충북 증원이 고향이다. 1945년 12월 하순경에 정찬성 목사가 시무하는 이웃마을 반능교회에 김은석 목사가 와서 말씀을 전하였는데, 말씀에 취해 큰 은혜를 받았다. 부흥회 때 침례식이 있었는데, 다른 사람들에게는 침례를 주면서 자신에게만 주지 않자, 이를 방관치 않고 간청하였다. 이에 김은석과 정찬성은 김정만을 넷가로 데려가 김은석이 위해서 기도하고, 정찬성은 입은 옷 그대로 물속에 들어가 침례를 베풀어 주었다. 침례를 받고 나니 너무 기뻐고, 추운 겨울이었는데도 옷이 금세 말랐다고 한다.

1946년 반능교회를 섬기던 중에 담임 정찬성의 권유로 부강 신화신학 성경연구회에서 공부하였다. 3개월 후 정찬성이 김정만에게 교회를 맡기고 사임하자, 교회를 맡아 일하면서 성경공부를 위해 반능과 부강을 오갔다. 반능에서 부강까지는 80킬로미터나 되는 먼 거리였지만, 월요일 새벽예배를 마친 다음 출발해서 저녁까지 걸어서 부강에 도착하곤 하였다.

김정만은 1949년 가을 정찬성, 김은석 두 목사들과 함께 서울 필운동교회를 방문하였을 때, 성낙소, 최상현이 교수로 있던 이곳 신학교에 성령론에 관한 논쟁이 있음을 직접 목격하였다.

33) 이신, 이경(엮음) 지음, 『돌의 소리: 이신 시집』(서울: 동연, 2012).

어느 날 저녁은 너무 추웠던지 다른 사람들은 오지 않고 김정만 혼자만 부강에 도착하였다. 부강에 도착하여 평상시처럼 저녁 예배를 드린 후 식사시간이 되었지만 먹을 것이 없자, 김은석은 소금물이라도 끓여오라고 했다. 그 날 저녁은 소금물을 놓고 감사기도를 드린 후 마시는 것으로 식사를 대신하였고, 그 다음날도 새벽예배를 드린 후 아침식사로 간밤에 마시다 남은 소금물로 대신하였다. 그런데 밖에서 배달부가 왔다는 소리가 났고, 나가보니 최춘선이 쌀 한 가마를 가지고 와서는 하나님이 형님네 갖다 드리라고 했다면서 놓고 갔다. 최춘선이 돌아가자마자 김은석은 쌀을 반 가마씩 나눈 후에 “반 가마는 내가 먹고 반 가마는 김형제가 가져가게.” 하면서 주었다. 그 때 김정만은 “도대체 세상에 이런 분이 또 어디 있을까?” 라고 생각하며, 스승을 더욱 잘 모셔야겠다고 결심하였다고 한다.

그 후 충주교회에 부임하여 열심히 전도했더니 얼마 되지 않아 4-5백 명이 모이는 교회로 발전하였다. 김정만은 그 교회를 스승인 정찬성에게 넘겨주고, 사모의 친정이 있던 (충북 청원군 북이면) 송정리로 가서 교회를 개척하여 1954년에 예배당을 짓고 헌당예배를 드렸다. 그때 김은석 목사가 설교를 위해 참석했는데, 큰 딸 순명이 우니까 얼른 안아주었는데, 그만 어린 딸이 실례를 하여 예복이 젖고 말았다. 그러나 김은석 목사는 웃도 갈아입지 않은 채 그대로 입고 설교하고 돌아갔다.

그 후 (충북 청원군 남일면) 황청리(김광희 집사) 교회로 옮겨갔다가 다시 반능교회로 옮겼는데, 폐병을 얻어 생명을 부지하기 어렵게 되었다. 그러자 월간 한길사(1959)는 김정만 형제가 죽었다고 부고하였다. 그러나 김정만은 기도로 고침 받고 열성으로 복음을 전하였다. 그 결과 원근 각처에서 교인들이 모여들어 격주로 충북 각지를 순회하며 복음을 전하였고, 교회들도 뜻을 같이 하였다.

김정만 목사가 폐병만기로 죽음을 눈앞에 두었을 때 존 힐 선교사가 병문안으로 찾아와 약을 가져다주기도 하였다. 김정만은 최후의 수단으로 항상 기도하던 음성 고사리봉을 찾아 하나님께 매달렸다. 일주일이 지나자, 당시 눈이 내려 쌓였었는데, 김정만이 있던 곳은 눈이 녹아있었고, 앉았던 자리의 소나무는 뽑혀 있었다. 그만큼 혼신을 다하여 기도했던 것이다. 그리고 몸이 가볍고 상쾌해져 집에 내려와 보니 씻은 듯이 병이 나아 있었다.

그 후 충북 증원군(현 충주시) 신이면 (화석리 방축골 교회)에 개척을 하고, 다시 반능교회로 왔다가 1968년에 (충북 괴산군 불정면 삼방리) 갓돈 교회(현 삼방교회)를 개척하였는데, 전 주민들이 믿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 그들 가운데 김정례 집사와 지재성 집사는 갓돈교회를 이루는 기둥이 되었다.

1971년에 강원도 원주교회를 개척하고, 1973년에 서울 상계동 희망촌 교회로 부임하였다가 1981년 12월 이신이 소천 하던 때에 다시 소생하기 어려운 중병을 얻어 연세대 병원에 입원하였다. 그러나 이때에도 하나님은 고쳐주었고 오늘의 상계 그리스도의 교회 자리를 매입하는 역사를 체험케 하셨다. 김정만은 12개의 교회를 개척하고 1993년이 상계동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은퇴하였다.

목회자로서 김정만은 김은석, 정찬성을 스승목사로 모셨고, 김재순, 최요한, 심영진,

이신, 김상호, 이원로(노), 조길재, 지철희, 이재석, 홍승만(이상 목사), 김교인, 이학재, 김길홍, 조춘식, 박오복(이상 장로), 박양순, 최돌연, 김광희, 박정희, 김옥수, 이희, 김정례, 지재성, 정현매, 권영신(이상 집사) 등을 잇을 수 없는 동료들로 기억하였다.

김정만 목사는 3남1녀를 두었으나 가난하여 제대로 돌보지 못하였다. 한 때는 자녀들을 고아원에 맡기기도 하였다. 목회 중에 성령님의 역사도 많았다. 자만할까봐 거둬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정도였다. 교회를 핍박하던 동네 깡패를 회개시키기도 하였다. 쌀이건 보리건 들어오면 신도들에게 나눠줬다. 새끼 돼지를 나눠주며 교인들이 살아갈 방안을 제공하기도 했다. 김정만 목사는 안락한 삶을 거부하고 십자가의 길을 걸었으며 신약성경교회 회복에 힘썼다. 성경에 없는 것은 결코 따르지 않았다. 그 단적인 사례가 자신이 섬기는 교회에서 권사를 세우지 아니한 것이었다.

11) 장주열 목사(1923.5.4-1983.12.18)



장주열 목사(뒷줄 왼쪽의 선교사 좌측)
안양 그리스도의 교회 침례식 기념(1961년 3월 19일)

장주열은 최요한 목사의 큰 동서로 불교가정에서 자랐으나, 결혼하기 위해서 선을 본 여자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결혼을 할 수 없다기에 그 여자와 결혼할 욕심으로 예수를 믿겠다고 약속하였다. 장주열은 약속대로 전남 함평군 엄다면 영흥리 영흥교회에서 학습세례를 받고 김순례와 혼인을 하였다.

1946년 1월에 전남지방을 순회하며 부흥회를 인도하던 김은석에게 큰 은혜를 받고, 영흥교회 장로를 설득하여 1946년 2월에 영흥교회에서 김은석이 인도하는 부흥회를 갖도록 하였으며, 손아래 동서인 최요한과 처제 김정녀를 그 부흥회에 초청하였다. 그 부흥회에서 최요한과 사모 김정녀, 장주열과 사모 김순례는 교우들과 함께 큰 은혜를 받았다. 그로 인해 일주일 하려 했던 부흥회가 열흘로 연장되었다.

이후 장주열은 최요한이 전남 함평군 손불면 신흥리에서 신흥 그리스도의 교회를 개척할 때 직접 교회당을 지었고, 10여리 떨어진 곳에서 신흥교회를 걸어 다니며 봉사하였다.

장주열은 동서 최요한, 함태영, 김재순과 함께 광주와 목포 신화신학 성경연구회에서 공부하였고, 1951년 늦봄에 광주에서 한국 그리스도(인)의교회들 교역자회로부터 김은석의 주례로 최요한, 김재순, 함태영, 이신, 김동열과 함께 목사안수를 받았다.

장주열이 충북 괴산군 소수면 수리교회에 부임하여 목회할 때 아들 장복남이 폭격을 맞아 위급한 상태였는데도, 기도하고 교회에 뉘어 놓고 전도를 나갔으며, 15일이 지나자 깨끗하게 치유되었고, 주일 날 주의 만찬을 하려고 잔에 물을 부으면 곧 예수님의

피같이 되었다고 김순례 사모는 회고하였다. 또 공산군에 잡혀 인민재판 중에도 몇 번이고 풀려났으며, 부산에서 성령 대부흥회를 인도할 때에는 조용기 목사까지도 장주열의 안수를 받았다고 김순례 사모는 회고하였다.

이후의 행적을 보면, 그는 1958년 5월 5일에 김은석 목사로부터 집중강의 일정을 통보받았고, 1961년 8월 17일 부강교회에서 '신약교회로의 환원'이란 주제로 그리스도의 교회 연합회가 개최되었을 때 참석하였으며, 60년대 중반에 한국성서신학교에서 개최된 그리스도(인)의교회들 연합회에도 참석하였다. 1961년 3월 19일에는 존 힐(통역 김찬영)을 초청하여 경기도 시흥군 안양읍 내천동 706번지에 소재한 안양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침례식을 거행하였고, 이듬해인 1962년에는 안양교회 예배당을 건축하였다.

장주열 목사는 청주교회, 수원교회, 안양교회 등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1983년 별세하였다. 자녀로는 복남, 성순, 성례, 성님이 있다.

12) 최요한(용환) 목사(1923.01.20-1998.03.28)



최요한(용환) 목사

최요한은 전남 함평군 대동면 용성리에서 장로교인의 맏아들로 태어났다. 고종황제 시절부터 친가와 외가 모두가 3대에 걸쳐 장로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였다. 1944년 1월 20일 역시 장로교인인 김정녀와 목포 장로교회에서 결혼하였다. 세례교인이었지만, 1947년 7월 중에 전남 영광지역을 순회하던 중에 침례가 성경적임을 깨닫고 김은석 목사에게 침수세례를 받았다.

(1) 자생적 신약성경교회 활동

최요한은 재건파와 고려파 신앙과 맥이 같이 하였다. 최요한이 김은석을 처음 만난 것은 큰 동서인 전남 함평군 엄다면 영흥장로교회 장주열 집사가 우연히 김은석의 순회 집회에 참석하였다가 큰 은혜를 받았고, 김은석을 초청하여 부흥회를 열자고 교회 장로를 설득하여, 그 날짜를 1946년 2월 초로 잡았다. 장주열은 부인과 함께 은혜를 사모하는 손아래 동서 최요한 부부를 찾아가 부흥회 소식을 알리고 참석을 권유하였다.

부흥회 다섯째 날에 진리의 영이 최요한에게 임하였다. 『목포 그리스도의 교회 50년사』 370쪽에 의하면, 최요한은 이날 자기 마음에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한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 분쟁은 죄다.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이니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한다.”는 강한 음성을 듣는 것 같았다고 한다. 참석한 100여명의 신도들에게도 큰 은혜가 임하였다. 그로 인해 일주일 하려 했던 부흥회가 열흘로 연장되었다. 이 부흥회 기간에 최요한, 김정녀 부부는 김은석을 집으로 초청하여 성경강의를 들었다.

그로부터 2개월 후 최요한은 전남 함평군 손불면 신흥리 자택에 ‘신흥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간판을 내걸고 교회를 개척하였다. 『목포 그리스도의 교회 50년사』는 최요한이 김은석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자택에서 ‘신흥 그리스도의 교회’를 개척한 것은 김은석의 부강 그리스도의 교회보다 7개월이나 앞서는 것이고, 충청이남지역에 세워진 최초의 자생적 그리스도(인)의교회라고 주장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김은석이 김교인 장로의 초청으로 부강 오데골 장로교회에 부임한 것은 해방직후인 1945년 가을이었다는 전통적인 주장에 반해, 김규상 목사의 증언에 의존하여 그보다 일 년이 늦은 1946년 가을이었다고 믿기 때문이다.

최요한은 1946년 2월 영흥장로교회 부흥회 때 혹은 자신의 집에 성경을 공부할 때에도 그리스도(인)의교회들에 대해서 듣지 못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김정만 목사는 1945년 12월 하순경에 정찬성과 김은석으로부터 침례를 받았다고 주장한다. 김정만은 1946년 반능교회를 섬기던 중에 담임 정찬성의 권유로 부강 신화신학 성경연구회에서 공부하였고, 1949년 가을에는 정찬성, 김은석 두 목사들과 함께 서울 필운동교회를 방문하여 그곳에서 가르치는 성낙소, 최상현과 성령론에 관한 논쟁이 있음을 직접 목격하였다고 하였다. 이 증언은 김은석이 1945년 가을에 부강장로교회에 부임하였다가 1946년 어느 때에 부강 그리스도의 교회를 개척하였다는 증거가 된다. 또 박점상 목사는 1946년에 김은석과 함께 그리스도(인)의교회들로 환원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정찬성 목사는 1946년에 공부한 신화신학 성경연구회 제1기생으로 알려져 있다. 정찬성은 김은석에게 오데골 장로교회를 나온 후 새로 시작한 부강교회의 이름을 로마서 16장 16절을 들어 부강 그리스도의 교회로 부를 것을 권하였다는 김정만 목사의 증언이 있으나 명확하지는 않다.

이러한 자료들은 김은석이 부강장로교회에 부임한 것이 1945년 가을이었고, 부강 그리스도의 교회가 1946년 어느 시점에 시작되었다는 점을 부정하지 못하게 한다. 그러나 만일 목포교회의 주장처럼, 1946년에 시작된 부강 그리스도의 교회와 신흥 그리스도의 교회가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의 존재여부를, 다만 몇 개월간이라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시작된 교회들이라면, 성낙소에 의해서 1927년 충남 부여군 세도면 화수리 2구 290번지 사랑채에 세워진 ‘기독교교회’(基督之教會)에 이어 충청이남지역에 자생적으로 생긴 신약성경교회 운동이 될 것이다.

최요한은 1946년 4월에 시작한 전남 함평군 손불면 신흥 그리스도의 교회가 10월에 50여명에 이르자 김재순에게 위임하였다. 그리고 10월초에 전남 함평군 손불면 주포리 동네 창고를 대여 받아 두 번째 교회를 개척하였다가 석성리 청학동으로 이사하여 예배당을 짓고, 이름을 ‘석성리 그리스도의 교회’로 정하였다. 1950년대 중반에는 이 교회의 창립멤버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노의수 집사가 석성리 신생동 교회와 청학동 그리스도인 집회소를 인도하였으나 발전하지 못하다가 김재순이 석성리 청학동으로 옮겨와서 신앙촌을 만들어보려고 하였으나 실패하였다. 교회 터가 김재순의 부친 김교인 장로 앞으로 등기되어 있었는데, 이 무렵에 김교인은 전남 함평군 함평면 석성리에 거주하고 있었다. 그는 석성리 그리스도의 교회를 순복음교회로 이적 시켰고, 700평 땅을 기증하

여 50평 예배당을 짓게 하였다.

김교인은 1956-57년경에 순복음교회로 이적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김교인이 김은석의 성경통독메모에서 1957년부터는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 반면에 김은석의 1954-56년 성경통독메모에 의하면, 전남 함평군 함평면 석성리 '청학동 그리스도인 집회소'와 '신생동 교회'가 여전히 노의수 집사(전도사)에 의해서 인도되고 있었고, 김은석이 내려와 이 두 교회에서 백일성경연구회를 개최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김은석의 1954년 6월 14일(월) 성경통독메모에 의하면, 김은석이 전남 함평군 함평면 석성리 김교인의 집에 잠시 들리고 있고, 8월 8일(일)자 성경통독메모에 의하면, 김은석이 오전에 전남 함평군 함평면 석성리 김교인 장로택에서 아가서 4장을 읽고, 오후에는 손불면 신흥교회 주택에서 아가서 4-6장을 읽고 있다. 1956년 7월 16일(월)자 언급에 의하면, 김은석이 서울시 서대문구 대현동 산18번지 김교인 장로택을 방문하였다. 그리고 1956년 12월 13일(목)에는 김은석이 김교인과 함께 전남 함평군 함평면 석성리 신생교회 노의수의 객실에 머물렀다.

김은석은 1955년 10월 15일부터 1956년 (2월까지 할 예정이었으나 실제로는) 1월까지 이 두 교회당에서 백일성경연구집회를 열어 노의수 집사 등을 헌신적으로 가르쳤다. 이 백일성경연구집회 때는 유난히 추웠는지, 10월 20일(목)에 일기가 차서 고생이라고 하였고, 12월 16일(금)은 크게 추웠다 ("今朝는 大寒이 되엿슴)고 적었다. 이날 아침 김은석은 대전에 갈 계획이었다. 그런데 "간다고만 하면 섭섭해 하니 답답함."이라고 적었다. 김은석의 이런 헌신에도 불구하고, 청학동 그리스도인 집회소에 대한 언급은 백일성경연구집회 중이었던 1955년 10월 21일(금) 이후에, 신생동 교회는 1956년 12월 13일 이후에 끊겼다. 김교인과 노의수에 관한 언급도 끊겼다. 언급이 없는 것을 보면, 김은석의 헌신적인 수고에도 불구하고, 순복음교회로 이적한 김교인의 뜻대로 될 수밖에 없었던 것 같다. 다음은 김은석이 남긴 1956년 12월 13일자 성경통독메모이다.

1956년 12월 13일 새벽(목) 2시부터 전남 함평군 함평면 석성리 신생교회 노의수 형제 객실에서 김교인 장로님과 임남규 형제와 동숙하던 중, 起坐禱하다가 나의 사명인 주님이 맥기신 일을 하는바 앞으로 서울성경신학교로 간다고 한말을 대답한 후 또한 들이난 일리 있음으로 그만 둘 것을 다시 뉘에 작명하고 김재순 목사께 편지하고서 지금 이 신생동서 1월시까지 공부한다고 광고하여 사람들리 오난 일과 여러 가지로 생각 중에 엇지할가 하다가 성경 빌서를 보난 중 1장 27-2:1-2,14을 생각하는 중에서 지금 갖치 하는 일은 마음을 갖치 하는 일리 되지 못하고 원망과 시기와 분쟁이 표현하는 것을 보아 아무리 생각하여보아도 나는 갖치하지 못하고 따로 떠러져서 내게 맥기신 주님 명령을 실행하여야 갓다는 생각이다. 내가 기도드리다가 성경 보면서 생각하여 이 일을 기록하는 시간은 3시 20분이였다. 신생동 노의수 집사택 객실에서 記함. 김은석 止.³⁴⁾

(2) 1946-50년 기간에 세워진 교회들

최요한은 1946년 4월 전남 함평군 손불면 신흥리에 그리스도의 교회, 동년 10월 전남 함평군 손불면 주포리(석성리 청학동으로 이전)에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운 후, 이듬

34) 『한국의 바울 김은석 목사』: 194.

해인 1947년 1월초에 전남 무안군 현경면 평산리³⁵⁾ 김광음(정귀남의 모친) 집사 집에서 그리스도의 교회를 개척하였다. 평산리 교회에 관한 언급은 김은석의 성경통독메모(1953-58)에 지속적으로 나타난다. 임춘봉, 박점상, 지철희 등이 목회하였고, 정귀남³⁶⁾ 집사(전도사)가 예배를 인도하던 중에 갈라져 오늘에는 무안 현경현화 그리스도님의 교회로 이어가고 있다.

참고로 성낙소 목사는 단기 4286(1953)년 7월 3일에 『신약교회 목회학』를 발행한 바 있다. 이 귀한 책을 그리스도의 교회 연구소가 지철희 목사로부터 기증받아 매우 어렵게 편집한 바가 있다. 지철희는 이 책을 정귀남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책 뒷장 겉표지에는 “평산 그리스도의 교회 1958년 2월 10일 구입 지철휘”라고 적혀 있다.

최요한은 1947년 7월에 영광 무영교회 임장로 가정과 김집사 가정을 환원시켜 영광 무영 그리스도의 교회를 개척하여 김재순에게 위임하였다. 임장로의 딸은 그 후에 김재순의 제수가 되었고, 건축업자였던 임장로가 예배당을 건축하였다.

최요한은 1948년 3월 초에 광주 사동에 김윤선 집사의 소를 팔아 2층집을 세내어 광주 사동 그리스도의 교회를 개척하였다. 이 무렵 최요한, 장주열, 김재순, 김동열 등은 광주에서 노방전도에 전념하였다. 김은석의 성경통독메모에 광주 사동 교회는 1954년 9월 한 달 동안만 언급되었으며, 주소는 광주시 남구 사동 22번지였다. 이후 김동열이 광주 금동 그리스도님의 교회로 명칭을 바꿔 이어가고 있다.

1951년 늦봄에는 광주에서 최초로 한국 그리스도(인)의교회들 교역자회가 조직되었고, 초대회장에 김은석이 선출되었으며, 김은석의 주례로 최요한, 장주열, 김재순, 창현 함태영, 이신(이만수), 김동열이 목사안수를 받았다. 추측컨대 안수 장소는 사동교회가 아니라, 함태영이 1951년 5월에 광주 사직동공원 및 방송국 입구에 사재를 처분한 돈과 부친의 지원금과 영광 무영의 임장로의 현금으로 구입한 일본 적산가옥 2층이었을 것이다. 이 건물은 광주 그리스도의 교회 겸 신화신학 성경연구회로 사용되었다. 이 건물에 강순명이 1952년 7월 13일에 천혜 경로원을 설립하였다.

최요한은 1950년에 전북 고창에 그리스도의 교회를 개척하였다. 김윤선 집사와 김남수 집사가 영광무영교회가 너무 멀어서 고향인 고창 김윤선 집사 집에 교회를 세우게 되었다. 6·25전쟁 중에 8명의 순교자를 낸 곳이다.

이상 언급된 6곳의 교회들은 최요한이 1946년부터 1950년까지 세운 교회들이며, 오늘날까지 남아 있는 곳은 김동열 계열의 무안 현경현화 그리스도님의 교회와 광주 금동(사동) 그리스도님의 교회뿐이다.

(3) 1951-55년에 세워진 교회들

최요한은 1951년 봄에 목사안수를 받고나서 장성기도원을 맡아 8개월간 시무하면서

35) 박점상의 처가 마을, 1951년 음력 8월 13일부터 이곳에 거주한 박점상은 자신이 건축하여 개척하였다고 증언함.

36) 지철희의 장인, 정일홍 목사의 부친.

침례와 주의 만찬예배를 드리며, 200여명이 함께 먹고 자며 기도하는 은혜의 동산을 만들었지만, 조순례 원장이 환생론을 주장하기 시작하자 1952년 1월초에 기도원을 박차고 나와 기도하던 중에 목포시 남교동 큰 시장 골목상가 2층을 전세 내어 목포 그리스도의 교회를 개척하였다.

그러나 최요한은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1953년 4월 8일 광주에서 개최된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창립총회 때 (추측컨대 정찬성, 김상호와 함께, 김교인은 그보다 3-4년 후에) 이적하여 1953년 초에 전남 목포시 죽교동 391번지에 목포 유달 교회(순복음)를 개척하였다. 이곳은 전남 영암군 학산면 상월리 진성구 장로가 구입한 건물의 2층이었다. 그러나 최요한은 그리스도(인)의교회들에서 목사안수를 받았고 주의 만찬예배에 대한 신념도 확고해서 그리스도(인)의교회들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지는 않았다. 김은석은 성경통독메모에서 1954년 6월 14일부터 전남 목포시 죽교동 39번지 2통 4반 해병대 앞 유달 교회당에 '그리스도의 교회 성경연구처'라는 간판을 붙이고 백일성경연구집회 등을 인도한 것으로 적고 있기 때문이다.

1955년 9월 25일에는 김사라 집사가 개척한 목포 복음교회를 시무하였다. 교회가 크게 성장하여 기공예배를 드리고 예배당 건축이 된 상황에서 교회명칭에 대해 고민하던 중 최요한은 목포 그리스도의 교회로 정하기를 원했고, 제직자들의 투표에서도 그렇게 결정되었으나 창립자인 김사라 집사 측과 교회명칭으로 인해서 갈등이 커지자 1957년 10월 5일에 사임하였다. 그러나 이 교회는 지금도 침례와 주의 만찬을 소중히 여기는 대형 독립교회로 남아 있다.

(4) 목포 그리스도의 교회



목포 그리스도의 교회(1961년)

최요한은 1957년 8-9월의 집회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교회들로 복귀하기로 마음을 확정하고 10월 5일 목포 복음교회를 사임하기 직전에 목포시 대안동 11번지에 목포 그리스도의 교회를 개척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포교회는 당회를 통해서 창립연월을 일 년 앞당겨 1956년 10월 1일로 확정하였는데, 그 이유는 최요한 목사가 장성기도원을 박차고

나온 후, 1953년 초 목포시 죽교동 391번지에 유달 교회(순복음)를 개척할 때까지, 1952년 1월초에 목포시 남교동 큰 시장 골목상가 2층을 전세 내어 1년 정도 목포 그리스도의 교회를 개척한 바가 있어서 이 점을 감안한 결정이었다.

목포 그리스도의 교회는 1957년 9월말부터 사택에서 20여 가정이 모여 기도예배 전념하면서부터 잉태되었다. 진성구 장로가 큰 힘이 되어 오늘의 목포교회가 시작될 수 있

었다. 그는 장로교회에서 장로안수를 받은 이로서 영암군 학산면 상월리에서 방앗간을 운영하던 중에 최요한을 만나 1952년에 상월리 교회를 그리스도의 교회로 환원시켰고, 1953년에는 자신의 건물 2층을 유달 교회당으로 쓸 수 있도록 하였으며, 1957년 목포 그리스도의 교회가 개척될 때에는 창립멤버로 전 가족이 헌신하였다. 그러나 그는 1968년에 목포 복음교회로 이적하였다.

목포 그리스도의 교회는 이듬해인 1958년에 적산가옥을 개조하여 예배당 16평, 사택 10평을 마련하였다. 이 가옥은 크기가 200평이나 되는 건물로써 교회가 차지한 공간은 왼쪽 가장자리 26평이었다. 1961년에 이 가옥 뒤편 24평을 구매하였다. 이에 최요한은 50평 크기의 석재건축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반대하여 1968년에 진성구 협동장로, 1969년에 세 명의 장로들이 목포복음교회로 이적하였다. 최요한은 이런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50평 석재 본관건축을 착공하였다.



목포 그리스도의 교회

1971년 말에 1층 50평, 이어서 이층 25평의 석재 예배당의 공사를 완료하였다. 1972년 4월에는 현관을 아치형으로 개조하였고, 1977년 3월부터 3층 25평 증축공사를 시작하여, 총 건평 100평이 완공되었다. 1984년 11월 11일에 26평 아파트 한 채를 목사관으로 구입하였다. 1989년 10월부터 시작하여 교육관 50평을 확장하였다. 1995년 2월 27일에는 산정동 1112-3 대지 1500평을 매입하였고, 1995년 11월 6일에 착공하여 4층 720평의 예배당 건축을 완료하였으며, 1997년 11월 27일에 헌당예배를 드렸다. 1967년에는 고하도 그리스도의 교회가 설립되었고, 고하도 교회 옆 자리에 1971년 감람산 기도원이 설립되었다.

최요한은 슬하에 6남 2녀를 두었다.³⁷⁾ 동생 최요열은 순복음신학교(현 한세대학교) 제1회 졸업생으로서 서울 이태원 순복음 교회에서 시무하다가 1960년대 기간에 존 J. 힐 선교사가 막 시작한 한국성서신학교에서 교수로 섬겼다. 1965년 12월 5일부터 부천시에 위치한 새소망교회(순복음)를 맡아 크게 성장시켰다.

최요한 목사는 1992년 12월 29일 은퇴 후 1998년 3월 28일(토)에 별세하였다.

(5) 최요한의 신학적 신념

『목포 그리스도의 교회 50년사』 333-359쪽에 의하면, 최요한은 목포 그리스도의 교

37) 목회자3, 장로2(교수1), 사모1, 집사2(안과 의사1).

회를 개척하여 40여년을 섬기는 동안 줄곧 3생명, 즉 말씀의 생명, 성령의 생명, 성찬의 생명을 선포하였다. 이는 말씀 속에 성령님의 능력이 더해지고, 속죄와 구속을 상징하는 주의 만찬이 더해져야 비로소 생명의 완전성이 확보된다는 믿음 때문이었다. 이 믿음을 떠받치기 위해서 최요한은 1년에 몇 차례씩 주일 대예배 때 구약의 성막도를 강단 벽에 걸어놓고 지성소의 언약궤는 생명과 직결되는 것이고, 그 속에 들어있던 돌비들은 말씀의 생명을, 아론의 싹난 지팡이는 성령의 생명을, 향아리에 담긴 만나는 성찬의 생명을 예표한다고 가르쳤다. 여기서 생명은 상징이나 기념 또는 형식 그 이상의 것, 즉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생명이며, 구원과 직결되는 생명이다. 따라서 신약성경교회처럼 기도에 전념하는 동시에 신령의 예배, 진리의 예배, 진정의 예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생명이 되게 하는 예배를 드릴 것을 강조하였다.

(6) 최요한 목사와 전남지역 그리스도(인)의교회들

1950년대 충청전라지역에서 김은석 목사와 신화신학 성경연구회의 영향력은 절대적이었다. 1960년대는 존 힐 선교사와 대전에 세워진 한국성서신학교의 영향력이 상당하였다. 힐의 영향력은 충청권에서 김은석의 것에 못지않았지만, 전남에서는 김은석만큼 크지 못하였다. 반면에 목포교회 최요한 목사의 영향력이 전남에서 점차 커져갔다. 힐 선교사가 은퇴하고 30대 중반의 김찬영 목사가 한국성서신학교의 교장이 된 1970년대부터는 김찬영과 한국성서신학교를 중심으로 한 전북을 포함한 충청권과 최요한과 목포 그리스도의 교회를 중심으로 한 전남권의 영향력이 점차 양분되어졌다.

『목포 그리스도의 교회 50년사』 548-550쪽에 의하면, 최요한 목사는 1946년 4월 전남 함평군 손불면 신흥리(궁산리)에 그리스도의 교회, 동년 10월 전남 함평군 손불면 주포리(석성리 청학동으로 이전)에 그리스도의 교회, 이듬해인 1947년 1월초 전남 무안군 현경면 평산리에 그리스도의 교회, 1947년 7월에 전남 영광군에 무영 그리스도의 교회, 1948년 3월초 광주 사동에 그리스도의 교회, 1950년에 전북 고창에 그리스도의 교회, 1952년 1월초에 전남 목포에 그리스도의 교회를 개척하여 총 7개 교회를 개척하였다.

5년 후인 1957년 10월 1일에 오늘의 목포 그리스도의 교회를 개척하였다. 이 무렵에 전남 영암군 학산면 상월리 교회를 환원시켰고, 이어서 진도 군내 그리스도의 교회, 신안 매화 그리스도의 교회, 여수 백초 그리스도의 교회도 환원시켜 총 4개 교회를 환원시켰다. 이후 1963년에 목포 고하도 그리스도의 교회, 1969년 해남 상공 그리스도의 교회, 1970년 목포 외달도 그리스도의 교회, 1973년 목포 달리 그리스도의 교회, 그밖에 여수 화정 중앙 그리스도의 교회, 충남 금화 그리스도의 교회를 개척하여 총 6개 교회를 개척하였다. 1972년 최수신 전도사의 광주 발산 그리스도의 교회, 1981년 광주 무등산 그리스도의 교회, 1986년 광주 그리스도의 교회, 이상 3곳은 최요한 목사의 지원에 의해서 개척되었고, 새목포 그리스도의 교회, 목포 죽교동 그리스도의 교회, 목포 형제 그리스도의 교회, 이상 3곳은 목포 그리스도의 교회가 모태가 되어 개척되었다.

이밖에도 전남 해남군 옥천면 영신 그리스도의 교회, 해남군 화산면 마명리(화산 중앙) 그리스도의 교회, 해남군 화산면 사포리(화산 반석) 그리스도의 교회, 해남읍 부호리 그리스도의 교회, 신안 압해면 고이 그리스도의 교회, 목포 서남 그리스도의 교회, 영암군 영암읍 평리 그리스도의 교회, 이상 7곳이 최요한 목사의 영향을 받아 환원한 교회 또는 개척된 교회들이다.

13) 고광석 목사



김은석 목사의 제자이자 존 힐 선교사의 동역자였던 고광석 목사 (상) 1960년대 장소 미상의 교회. (하) 1960-62년경 대전 신흥교회 좌측부터 임훈봉 목사, 존 힐 선교사, 고광석 목사, 최요열 목사.

고광석 목사에 대한 자료는 많지 않다. 그러나 그는 1950년대 중반부터 김은석 목사의 제자와 동역자로 활동하였고, 존 힐 선교사가 대전에 정착한 1959년 초창기부터 시작하여 60년대 내내 힐 선교사의 사역에도 적극 동참하였다. 김은석의 성서통독 메모(1953-59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내용 몇 가지는 다음과 같다[조동호, <한국의 바울 김은석 목사>(도서출판 시시울 2020): 109-228].

첫째, 고광석은 신화신학 성경연구회 학생이었다. 고광석은 1955년 충북 괴산군 소수면 소수교회에서 진행된 백일집중공부에 참여하였다. 김은석은 이때 이미 그를 전도사로 호칭하였다. 1955년 5월 27일자 메모에 의하면, 이날 남녀 합하여 18명이 공부하였는데, “소수교회당에서 백 일간에 공부하는 중에 공부함. 김재순 목사 서울 가심. 고광석 전도사님은 권영수, 전도희 두 분과 전도 가심.”이라고 적었다.

둘째, 고광석은 바울의 디모데처럼 김은석의 충실한 제자였다. 김은석이가 가는 곳에 바늘과 실처럼 동행하였다. 1955년 6월 18일(토) 오후에 김은석, 김완례 부부와 동행하였고, 7월 8일에는 김은석과 함께 청주에서 소수교회로 향하였다. 또 12월 21일(수) 아침에는 김은석과 함께 서울성서신학교 숙사에서 지냈다. 1957년 4월 27일(토)에는 고광석이 김은석, 김규상 등과 함께 전남 해남군 마산면 장성리에 머물렀다. 김은석 목사의 병문안 또는 부름을 받고 자택을 방문한 기록이 1958년 1월 27일까지 몇 차례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셋째, 고광석은, 김은석의 성서통독메모들을 근거로 볼 때, 부강 그리스도의 교회 출신이었거나 충북 청주시 영운동이 거주지였거나, 1956년 어느 시점에 그리스도(인)의 교회를 영운동에 개척한 것으로 추정된다. 김은석 목사는 1956년 6월 23일(토) 아침에 청주역에서 기차타고 소수교회로 가기 위해서 강신규 자매와 함께 영운동 고광석 전도사 집에서 나온 것으로 기록하였고, 8월 17일(금)자 기록에 의하면, 김은석이가 김은영,

고광석, 노익수와 함께 충북 청주시 영운동 교회당에 머문 것으로 되어 있다. 참고로 영운동 그리스도의 교회는 김은석의 주소록에 남아있지만, 존 힐 선교사의 주소록에서는 찾을 수 없다.

넷째, 고광석은 병약하였다. 1955년 7월 19일 아침에 김은석이 대전 자택에서 부강으로 향하였는데, 부강에 도착해 보니, 고광석 형제가 병중이어서 수리교회에 가지 못한 것을 알게 되었다. 1955년 8월 16일 김은석은 사모 김완례와 김옥여, 이원노, 강신규와 더불어 병원에 입원한 고광석 전도사를 병문안하고, 대전 판암동 그리스도의 교회 애생원(愛生園)을 방문하였다.

고광석 목사는 1960년대 존 힐 선교사의 선교사역에도 적극 동참하였다. 존 힐 선교사는 가족과 함께 1959년 8월에 부산을 통해서 입국하여 대전에 정착하였다. 1959년 12월 1일 심영진 목사가 시무하는 충남 대덕구 유천면 도마리, 성화교회에서 신학교를 개교하고 예배당 앞에서 기념 촬영한 사진에 고광석이 존 힐 부부, 김은석, 심영진, 김태수, 오재건, 고재윤, 김찬영 등과 함께하였고, 수업시간 혹은 개강예배에도 참석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듬해 1960년에는 고광석이 시무하던 선화동교회로 옮겨 수업을 계속하였다. 이후 1960년대 중반에 한국성서신학교에서 개최된 그리스도의 교회 연합회에 참석하였고, 힐 선교사가 남긴 사진들에서 그의 모습을 많이 볼 수 있다.

14) 지철희 목사



전남 광주 김동열 목사님을 방문했을 당시 지철희 목사

지철희 목사는 1937년 8월 29일생으로써 소년시절부터 그리스도(인)의 교회들의 목회자들을 자주 접할 기회를 가졌다. 12세 무렵에 정찬성 목사가 충북 괴산군 불정면 외령리 교회를 지철희의 누나 집에서 시작한 바가 있고, 20대에는 박점상 목사로부터 전남 무안군 현강면 평산리 교회의 정귀남 집사의 딸을 소개받아 김

재순 목사의 약혼식 주례와 김은석 목사의 결혼식 주례로 1957년 11월 말에 결혼하였다. 김정만 목사도 결혼식에 참석하여 축하해 주었다.

지철희는 젊어서 김은석 목사를 비롯하여 다수의 초기 목회자들로부터 큰 영향을 받았다. 충북 청원군 부용면 부강교회와 충북 괴산군 소수면 소수교회에서 이뤄진 신화신학 성경연구회에 참석하여 강의와 설교를 듣고 목회자가 되었다. 이 무렵 함께 공부한 사람들은 이혜순, 나연찬, 김태수, 김철수, 심영진, 박병우, 김정만, 박점상, 김은성, 김은영, 모갑경 등이었다. 지철희 목사는 이 당시를 이렇게 회고하였다.

당시 부강에서 성경공부를 하려고 모인 사람들을 보면 참으로 가난했다. 나도 그랬지만, 대략 모인 사람들이 100-150명 이상이었는데, 항상 있는 사람은 7-8명 정도로써 대략 식량을

가져오는데 1-2말 가져오고 반찬도 제각기 가져오고 그래서 부족한 식량을 채우기 위해서 부장 근처 들녘으로 가서 버려진 배춧잎 무청, 고구마줄기 같은 것 그리고 장날이면 장터에 버려진 먹을 만한 것들을 주어다가 충당하고 없으면 금식하고 그러다가 힘들면 집으로 돌아갔다. 마치 전기충전소와 같이 은혜와 말씀이 그리우면 또 약간의 양식을 가지고 찾아왔다. 그러면서도 불만이 없고 그저 형제자매 모매님 하면서 걱정해주고 위로하였다. 환자가 많이 왔는데, 함께 간호하고 기도하며 누가 무엇을 시키지도 않고 무엇을 하라는 감독도 없었다.

전남 지방에서 많은 성도들이 왔고, 주로 청주와 대전근방에서 왔다. 충주에서 이종석, 이갑수, 정석기, 이원로(노), 조춘식, 김정만, 지철희, 이안식, 이학재 등이 왔다. 좀 더 이야기를 하자면, 설교를 듣다가 너무나 기쁘면 누가 말하지 않아도 찬송이 나오고, 결국에는 설교자나 듣는 이가 자연스럽게 합창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성령이 강하게 역사 하시면 무릎을 꿇은 채로 30-40cm까지 뛰기도 하였다. 얼마나 뛰었는지 결국 마루 장까지 꺼졌다 한다. 그러다가 기쁨을 이기지 못하면 부장 장날 거리를 급히 오고 가면서 외치기를 이 썩은 보리 찬밥 덩어리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라. 생명 떡으로 배불림을 받고 쉼을 받으라. 그리하면 영생을 얻으리라 라고 외쳤다.

고 김은석 목사님의 설교는 대략 열변이 아니고 조용한 강의식이었다. 신구약 성경을 오가면서 구약에서 물으면 신약에서 답을 하고 신약에서 물으면 구약에서 답이 나오는데 정확하고 일반적으로 아는 답보다 훨씬 새로웠다. 그래서 듣는 이가 무릎을 치며 기뻐하고 감사하곤 했다. 내가 보기로는 어느 성경학자보다도 더 성경을 많이 알고 성경을 통달한 분이였다.

어느 산이든 풀밭이든 앉으면 그 자리에서 밤새워 기도하고 쉬고 먹는 시간외에는 성경을 보고 찾는데, 성경이 갈레쪽같이 낡고 찢어진 것을 보았다. 그래서 많은 목사들이나 성도들이 존경하고 그에게 모인 것 같다. 그 당시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가장 엄격히 가르친 것은 동참 죄를 가르친 것 같다. 그리고 우상타파와 그리고 기성교회 목사들은 바리새인들이다. 그리고 세례 성찬을 왜곡함으로 구원받는 문제도 그들은 어렵다고 하셨다. 그래서 일반 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교회를 이단이라고 했을 것이다.³⁸⁾

지철희 목사는 최요한 목사가 평산리 처가 마을에 1947년 1월 초에 세운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결혼한 1957년에 첫 목회를 시작하였다. 평산리 교회는 1960년대에 대전 한국성서신학교에서 가르친 임춘봉 목사와 박점상 목사가 목회하였고, 지철희의 장인인 정귀남 집사(전도사)가 예배를 인도하던 중에 갈라져 오늘날에는 무안 현경현화 그리스도님의 교회로 이어가고 있다.



1960년대 조기암교회 성도들과 지철희 목사

참고로 성낙소 목사는 단기 4286(1953)년 7월 3일에 <신약교회 목회학>를 발행한바 있다. 이 귀한 책을 그리스도의 교회 연구소가 지철희 목사로부터 기증받아 매우 어렵게 편집한 바가 있다. 지철희는 이 책을 장인 정귀남 집사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라고 하였으나 책 뒷장 겉표지에는 “평산 그리스도의 교회 1958년 2월

10일 구입 지철희”라고 적혀 있다.

김은석 목사가 신화신학 성경연구회 집중강의 일정을 통보하기 위해서 보낸 1958년 5월 5일자 전보수신자에 지철희 목사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또 김은석은

38) <http://kccs.pe.kr/xianch28.htm>.

1958년 7월 10일부터 소년성경학이 개설된다는 것과 8월 1일부터 9월 10일까지 성경 공부가 있다는 통신문을 총 54명과 6곳의 교회에 보내었는데, 그 속에도 지철희 목사가 포함되어 있다.

이후 지철희 목사는 한국성서신학교에서 학업을 지속하였고, 1973년에 제21회로 졸업하였다. 지철희는 일평생 교회개혁에 힘을 썼으며, 개혁 후 교회가 성장하면 미련 없이 새로운 개혁지를 향하여 떠나곤 하였다. 충남 금산군 추부면 성당리 벤엘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오랫동안 시무하였고, 암으로 투병 중에 73세의 나이로 2010년 11월 21일 별세하였다.

15) 심영진 목사(1921.2.28-)



심영진 목사

심영진 목사와 김은석 목사의 관계를 알 수 있는 근거는 몇 장의 사진들뿐이다. 1958년 4월 13일(주일) 산상연합집회 중에 김은석과 함께 찍은 사진이 있고, 한국성서신학교가 설립된 직후, 교수로서 1959-60년 겨울에 존 힐 선교사 부부, 김은석, 김태수 및 오재건, 고재운, 고광석, 김찬영 등과 함께 자신이 시무한 충남 대덕군 유천면 도마리 성화교회(현대전 그리스도의 교회) 앞에서 찍은 사진이 있지만, 심영진의 이름은 김은석의 성경통독메모나 통신 및 신화신학 성경연구회 명단에서 찾을 수가 없다.

심영진 목사는 1921년 2월 28일 출생하였다. 심영진은 유교와 불교를 전전하며 10여년을 방황하다가 계시를 받고 개종하였다. 1953년 충남 대덕군 유천면 도마리 309번지 유천면장 손기섭씨 가정에서 성도 9명으로 장로교회를 창립하였고, 1954년 4월에 대전 그리스도의 교회로 발전된 장소에 천막교회를 세웠다. 1958년 8월에는 흙벽돌로 20평 교회를 신축하고 교회명칭을 성화교회로 정하였다. 한국성서신학교가 1959년 12월 1일에 시작된 장소가 바로 이 건물이었다.

심영진은 바로 이 무렵, 즉 1958년경에 김은석을 만나 환원하였다. 성경을 읽고 세례에 대해서 연구하다가 그가 받은 약식세례가 옳지 않다는 것을 알았고, 그 일로 고심하고 있던 차에 마침 김은석 목사가 대전 은행동에 계시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가 저물도록 세례에 관해서 토론하였으며, 그 후 일주일간 매일 만나 성경을 놓고 토론하던 중에 더욱 침례를 받아야겠다는 결심을 갖게 되었다. 같은 주간에 방서리 교회에서 김은석 목사가 인도하는 부흥회가 있었는데, 함께 가자는 권유를 받고 참석하여 은혜를 받고 돌아왔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심영진은 1958년 4월 13일(주일) 산상연합집회에 참석한 기념으로 김은석과 함께 사진을 찍었다.

집회에서 돌아온 심영진 목사는 김은석 목사로부터 부부가 대전 유등천에서 침례를



상좌 시계방향으로 1954년 천막교회; 1958년 8월에 건축된 20평 크기의 흙벽돌교회; 김은석 목사와 함께한 심영진 목사(산상예배가림, 1958년 4월 13일 주일); 1963년 9월경에 시작한 40평 크기의 시멘트 벽돌교회, 좌측부터 김순철(목사), 심영진 목사, 오재건(장로).

받았다. 심영진은 이 사실을 교회에 알리고 양심상 장로교회를 할 수 없다고 설득하여 그리스도(인)의 교회로 환원시켰다. 1963년 9월에 시멘트벽돌로 40평 교회를 신축한 후 성화교회(聖火教會)를 도마기독지교회로 개명하였다.

그리고 1975년 12월 4일에 연화벽돌로 91평 교회를 신축하고 교회명칭을 대전 그리스도의 교회로 변경하였다. 그 후 5년 만에 500평 규모의 예배당을 건축하였다.

1958년에 환원한 심영진 목사는 1960년대 기간에 한국성서신학교에서 교수로서 가르쳤고 존 힐 선교사와 협력하였다. 또 심영진 목사는 1959년에 개최된 제 1회 그리스도(인)의교회들 연합회에 성낙소, 장성만, 최요열, 이신 등과 함께 참석하였고, '신약교회로의 환원'을 주제로 1961년 8월 17일 부강교회에서 개최된 그리스도(인)의교회들 연합회에도 존 힐, 장성만, 박재관, 김동열, 이종만, 정인소, 김찬영, 김성철, 이신, 장주열, 성낙소, 안일승, 고재운 등과 함께 참석하였다.

심영진은 현재의 대전 그리스도(인)의 교회에서 30여 년 동안 사역하면서 <계시록 연의>, <계시록 서기>, <성막 조성론>, <선지자의 사명>, <창조와 섭리>를 저술하였고, 은퇴하고 서울 돈암동교회를 담임하다가 다시 대전으로 내려와 개척교회를 섬겼다. 사모 박영자로 더불어 일곱 남매를 두었다.

16) 김동열 목사(1922.09.05.-2008.08.23)



김동열 목사

김동열 목사는 김은석 목사의 신화신학 성경연구회 초창기에 정찬성, 장주열, 김명석, 김재순, 최요한, 김상호, 구광서, 박점상, 김정만, 창현 함태영, 이원노 등과 함께 공부하였다.

1951년경 영광에서 개최된 김은석 목사의 100일 집회에 김규상과 함께 참석하여 큰 은혜를 받았고, 1951년 늦봄에 광주에서 한국 그리스도(인)의교회들 교역자회가 조직되어 김은석이 회장으로 뽑혔고, 목사 안수식도 있었다. 이때 김동열은 이신, 장주열, 최요한, 김재순, 함태영과 함께 그리스도(인)의교회들 목사로 안수를 받았다.

김은석의 성경통독메모에는 1954년 7월부터 1955년 7월까지 만 1

년간의 행적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1954년 7월 22일 아침 신탄진 예배당에서 예레미야 2:9-3장을 봉독함. 오정에 신탄교회당 내에서 예레미야 4장 봉독. 김도철, 김동렬 합석 교회사 의논함. 밤 부강교회 강단 앞에서 예레미야 5장 봉독.

1954년 7월 27일 저녁에 서울시 동대문구 송인동 72의 77번지 천세영씨 큰 댁에서 아모스 1-2장을 봉독. 김동열 형과 동류(同留)함.

1954년 7월 28일 저녁에는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4가 15번지 삼신상회 이기철 형제 댁에서 아모스 8-9장을 봉독함. 동행동류 김동열 형과 모친님. 서울서 대전 자택에 돌아와서 차서(此書) 오바다를 봉독함.

1954년 7월 29일(목) 서울서 대전 오는 중 김동렬 모친 분과 동행 중 차내에서 마태복음 14-16장까지 봉독함.³⁹⁾

1955년 6월 23일(목) 오후에 부강교회당 방에서 에스라 1:1-2:59까지 봉독. 김완례씨 대전 가심. 오후에야 마가복음 10:47-12:12과 에스라 2:60-6:7까지 봉독함. 김동렬 형제가 부강교회에서 상봉. 전도회 자매 청주가심.⁴⁰⁾

1955년 7월 12일 아침은 대전 자택에서 이사야 41:1-43:28까지와 누가복음은 10:17-11:20까지를 김은순, 김명순, 김완례씨와 같이 봉독함. 5시 20분 발차로 부강행 차 김동렬 형제 동행. 부강 도착.

1955년 7월 19일 아침 대전 자택에서 새(이사야) 63:9-66:24까지 봉독하고 부강행중 차내에서 누가복음 17:14-18:30까지 봉독함. 부강도착해보니 고평석 형제가 병상에 있어서 수리교회도 못가셨다 함. 작일 18일 김동열목사 내부(來美, 부강에 오시기로) 약속하였었는데 못 오셨으니 하(何)유사(有事)인가 함이라.

1955년 7월 27일(수) 아침 부강교회 강단에서 예레미야 23:14-25:33까지와 요한복음 2:1-3:24까지 봉독함. 김태열 자매 수리 가심. 서울행 차중에서 마태복음 11-13장까지 봉독. 서울행 하게 되는 사명은 선교사 방문차 김동렬 형 모친님과 삼인 동행. 오후에 교사 1차 요함.⁴¹⁾

마지막으로 김동열 목사는 김은석 목사로부터 1958년 5월 5일에 집중강의 일정을 통보받고 있다.

김동열 목사는 1960년대부터 광주 그리스도님의 교회(Kwang Ju Church of Christ)를 중심으로 ‘그리스도님의 교회교역자회’를 이끌었다. 그러나 김동열 목사의 “폐쇄적 근본주의 노선”을 타 교단에서 오해하여 이단으로 여겼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광주와 전남지역의 그리스도의 교회들이 발전에 타격을 입었다.⁴²⁾ ‘그리스도님의 교회교역자회’는 한 때 15개 교회에 이르렀으나 점차 줄어들어 현재는 김동열 목사의 두 자제 김승복 목사와 김환 목사가 시무하는 광주 그리스도님의 교회를 포함하여 5개 교회 정도만 남아 있다.

김동열 목사의 신학적 입장은 김승복 목사와 김환 목사가 공동으로 엮어 출판한 『요한복음 영해』에 잘 들어나 있다.⁴³⁾

39) 『한국의 바울 김은석 목사』: 130-131.

40) 『한국의 바울 김은석 목사』: 152.

41) 『한국의 바울 김은석 목사』: 154-156.

42) 목포그리스도의교회 교회사편찬위원회, 『목포 그리스도의 교회 50년사(1956-2006)』, 381.

43) 김동렬, 『요한복음 영해(상,중,하1,하2권)』(도서출판 소복, 2013).

17) 김성철 목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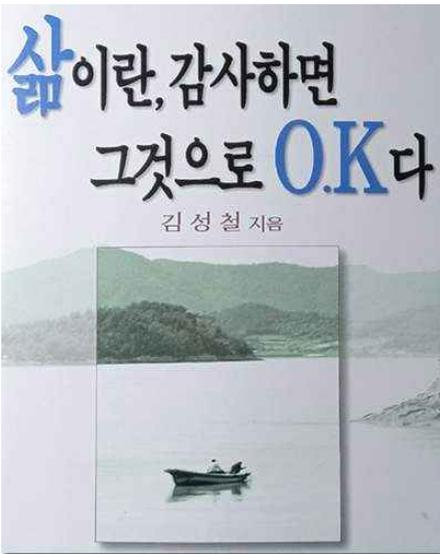


김성철 목사 부부와 힐러리(John Hill) 선교사(1990년 5월 13일)

따라서 부모들에겐 아쉬움과 회한이 남는다. 그런데 김성철은 양부모든 생부모든 그 어느 쪽으로부터도 그 어떤 도움이나 지원을 받지 못했고, 주경야독으로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까지 마쳤으며, 도미하여 목회에서는 물론이고, 사업에서까지 성공을 거둔 것은 실로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그것은 아이러니가 아니라 역설이었다. 김성철의 성공이 자식에게 아무 것도 해준 것이 없고, 남겨준 것이 없는 양부 김은석 목사와 생부 김주일 목사가 오롯이 하나님께 바친 헌신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 지극정성을 쏟고 대신에 가족과 자식에게는 아무런 정성도 쏟지 못했는데도 가족이 잘되고 자식이 성공한 것은 성공법칙의 역설이 아닐 수 없다. 그 역설의 증거가 바로 김성철 목사이다.

김성철은 극한 가난과 역경을 극복하고 일어선 성공한 그리스도(인)의 교회들의 목사이다. 그의 성공적인 삶에 작용한 힘은 두 가지였다. 한 가지는 그의 부모님들이 하나님께 오롯이 바친 헌신이었고, 다른 한 가지는 그 자신의 성품 곧 신실함과 부지런함과 성실함과 정직함이었다.

상당한 부모들이 자식들의 성공에 엄청난 공을 들이지만, 성공하기보다는 실패하는 사례들이 훨씬 더 많고



김성철 목사의 자전적 에세이집(진흥, 2000)

김은석 목사가 양아들 김성철에게 남긴 유산은 수차례에 걸쳐 제본을 반복하고, 메모용 속지들을 삽입한 1920-30년대에 출판된 아주 낡은 조선어와 한문이 혼합된 선한문(鮮漢文) 관주 성경책 한권뿐이었다. 그러나 그 한 권의 책에는 값으로 매길 수 없는, 또 돈으로는 살 수 없는 위대한 신앙유산이 담겨 있었다. 그 유산은 다름 아닌 김성철의 성공적 삶을 위한 종자씨앗이었다.

김성철 목사의 자전적 에세이집, 『삶이란 감사하면 그것으로 OK다』를 보면,⁴⁴⁾ 일평생 김성철 목사가 받아 누린 그 많은 은총과 축복들이 하나님께서 양부 김은석 목사와 생부 김주일 목사가, 비록 그들이 아들 김성철에게 물질적으로 잘해준 것이 없고 남겨

44) 김성철, 『삶이란, 감사하면 그것으로 OK다』(도서출판 진흥, 2000).

준 것이 없지만, 하나님께 바친 그 지극한 충성과 헌신을 보답한 것이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당연히 김성철 목사가 복을 받게 된 것은 본인 스스로도 하나님의 마음을 얻기에 충분히 신실했고, 진실하고 성실한 불굴의 노력과 특유의 부지런함에 기인한 바가 컸다. 또 자식들을 잘 먹이고 잘 입히며 잘 가르쳐 명문 학교를 나오게 하고, 돈 많이 벌어 억만금을 유산으로 남기는 것이 세속적 가치관에서는 중요할는지 몰라도, 자손들에게 그리스도교 신앙을 유산으로 남기는 것과 하나님의 마음을 얻기에 넉넉한 희생과 헌신을 하나님께 바쳐 그 은총의 보답이 자손에게 이어지게 하는 것보다 더 소중한 가치가 없다는 사실을 김성철 목사의 삶이 입증하였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김성철은 1938년 5월 17일 일본 야마구찌(山口) 현(縣) 아사(厚狹)에서 김주일(명석) 구봉림 부부 사이에서 2남으로 태어났다. 아사는 시모노세키에서 가까운 바닷가 마을이었다. 위로 세 살이 더 많은 형이 있었다. 네 살 때쯤 아버지가 징용을 피해서 산골 마을 '셋토 쓰스미'로 이사를 했다가 다시 농사를 짓기 위해서 '미호'로 이사하였다. 김성철은 이 '미호'에서 여섯 살 때 집에 찾아온 김은석 목사 내외를 처음 보았다.

전쟁직후에 무법천지가 된 위급한 상황을 피해 온 가족이 시모노세키까지 걷고 또 걸어서 도착하였고, 일본을 탈출하려는 조선인들의 아비규환 속에서 가까스로 부산행 배에 올라 죽을 고생 끝에 부산에 도착하였으며, 밀양시에서 가까운 '예림'에 자리를 잡고 살았다. 그리고 3년쯤 후인 1948년경에 김은석 목사의 양자가 되었다.

집은 서울 북아현동 금화산 언덕에 있었다. 이 집은 양어머니 김완례 사모, 누나 김명순, 어린 김성철의 힘만으로 지은 방 세 칸짜리 집이었다. 양아버지 김은석 목사는 늘 교회들을 순회하였기 때문에 집에 계신 날이 거의 없었다.

1950년 6·25전쟁이 터진 직후에는 13살 어린 나이에 한 달가량 몸져누웠다가 일어난 양아버지 김은석 목사를 모시고 부여 규암면 합송리로 피난을 갔었고, 1950년 9월 중순에 펼쳐진 UN군의 인천상륙작전의 성공으로 서울로 되돌아갔다가 1951년 1·4후퇴 때에는, 김은석 목사가 경남 사창(창녕군 부곡면 사창리?) 형제들의 집에 가셨기 때문에, 양어머니 김완례 사모를 모시고, 부강에서 북쪽으로 20여리 떨어진 충청북도 청원군 부용면 갈산리 '칠미'라는 시골동리로 가서 3개월 정도 지내다가 충북 괴산군 소수면 소수리에 계신 친부모 근처로 가서 지낸 후에 서울이 재탈환되고 나서 서울 집으로 되돌아왔다. 그 후에 집을 팔고 대전 은행동으로 이사하였다.

대전에서는 새벽에 조선일보 호남 업무국에 나가 일하며 오후에는 충남상고(당시 남대전 상업고등학교)를 다녔다. 당시 19살(1957년)이었다. 얼마간 잡지와 신문가두판매도 겸하였다.

김성철은 1960년 만 22살이 다 돼서야 고등학교를 졸업하였다. 충남대학교 사학과 야간대학에 입학하면서 새벽에 하던 신문사 일을 그만두고 기독교 세계 봉사회의 간사로 근무하였다.

1960년 5·16군사혁명이 있고나서 병역을 필하지 않은 자는 모든 직장에서 축출하라는 명령이 내려졌다. 김성철은 일본 태생이라 호적이 없었으나 이승만 때 가호적제도가 생겨 호적을 만들 수 있었다. 가호적의 생년월일이 4살이나 줄어 있었는데, 몇 차례의

입영연기 끝에 군에 입대한 것은 1962년 10월경이었다. 김성철은 김은석 목사가 별세한 이듬해 1963년 1월까지도 부관학교 교육병이었다. 이 때문에 김성철은 양아버지 김은석 목사의 임종을 지켜보지 못하였다.

1960년은 존 힐 선교사가 대전에 정착하여 신학교를 시작하던 때였는데, 1960년 초에는 신학교 수업을 선화교회에서 하고 있었다. 김은석 목사도 칩거(1958-59년 사이)를 끝내고 활동을 재개한 해였다.

1962년에 김은석 목사의 동향인 황해도 평산 출신의 양재문, 신용출 부부의 4남매 중 둘째 딸이었던 양정애 씨와 약혼하였다. 김성철은 혼전순결을 중시하였기 때문에 교제하던 여성들과 일정한 선을 넘은 일이 없었다. 약혼자하고도 마찬가지로 그해 학보영장이 나왔고, 10월초에 논산훈련소에 입대하였다. 친구 김만영(찬영)이 6개월 먼저 입대하여 김성철이 입소한 논산훈련소 29연대 1대대 1중대 의무대 기간병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었다. 훈련소에 근무했던 김진현 병장과 김만영(찬영) 일병이 도움을 줘서 인사행정 주특기를 받아 육군 부관학교에 입교할 수가 있었다.

1963년 1월에 양아버지 김은석 목사가 충남 논산시 부적면 충곡리교회에서 부흥회를 인도하시던 중에 소천하였지만, 약혼녀로부터 편지를 받고서야 그 전에 이미 전보와 관보 등이 영천 부관학교에 송달되었지만, 교육을 받고 있던 훈련병이어서 규칙상 그것들이 자신에게 전달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다행히 부대에서 일주일 외출증을 끊어줘서 김은석 목사가 돌아가신지 일주일이나 지나서야 비로소 약혼녀와 함께 산소에 다녀올 수 있었다.

산소에서 내려와 김은석 목사의 임종을 지켜본 최봉석 집사를 찾아뵈었다. 가족 중에는 아무도 임종을 지켜보지 못하였다. 최봉석 집사는 아버지가 운명하시기 전에 아들 김성철을 여러 번 찾으셨다는 것과 성철이가 자기를 이어 꼭 목사가 되어야한다는 유언을 남겼다는 것을 알려주었다. 그리고 그분으로부터 건네받은 것은 김은석 목사가 늘 들고 다녔던 낡은 가죽가방과 그 속에 담긴 동전 몇 개와 낡고 오래된 성경책 한 권뿐이었다.

군대생활은 20사단 예하 연대에서 근무하였다. 그 시절 예하 2대대에서 어떤 선임하사가 유언장을 남기고 자살한 사건을 처리하던 중에 갑자기 양아버지 김은석 목사의 유언 곧 “내 뒤를 이어 훌륭한 목사가 되기를 바란다.”를 떠올리게 되었다. 김성철은 이 사건을 계기로 아버지의 유언을 무수히 되새김질하게 되었고, “부친의 마음의 진실이 보이기 시작했다.”고 했다. 김성철은 아버지의 유언에 대해서 “그는 내가 미워서도 아니고 오직 신앙만을 위해 사셨는데, 아들 하나 목사 만들려고 세상 공부 외면해 가며 죽으면서까지 바란 유언...”이라고 기술하였다.

김성철이 양정애씨와 결혼식을 올린 것은 제대를 1년 반 정도 앞둔, 즉 군대생활 1년 8개월 정도를 마친 때였다. 결혼식 직후 김은석 목사 산소 곁에서 부부가 찍은 사진에는 인화한 날짜로 추정되는 ‘1964 7’이란 숫자가 선명하게 박혀있다. 그 후 양정애 사모가 첫 아이를 출산한 때는 김성철이 제대를 10개월 앞둔 때였다. 군대생활을 38개

월 했기 때문에 제대는 1965년 12월경에 한 것으로 추정된다. 김성철이 한국성서신학교 졸업식 사진에 처음 등장한 때는 1966년 6월 30일 제8회 졸업식 때이다.

제대 후 대전 교도소 교무과장이었던 김치연 목사가 섬기는 선화교회 재건축의 책임과 관리를 맡았다. 교회를 섬기는 일은 김은석 목사의 유언을 따르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선화교회는 김은석 목사가 1951년 3월 15일 완전한 서울 수복 이후 서울 북아현동의 집을 팔고 대전으로 내려와 대전시 선화동 315번지의 땅 385평을 매입하여 판자로 지은 예배당과 주택이 붙은 건물이었다.

김성철은 신학교를 운영하는 존 힐 선교사에게 없어서는 안 될 인물이었다. 김성철은 신학교에서 일이다역을 감당하였다. 그는 서무과장, 기숙사 사감, 급식조달 책임자, 근로 장학생 관리책임자, 문과 과목 교수였다. 이뿐 아니라, 김성철은 충남대학교 사학과 졸업 후 경영대학원에 다니고 있었고, 선교부의 총무와 <한국 크리스천 미션> 총무도 맡고 있었다. 그가 이렇게 많은 일을 맡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였다.

첫째, 김성철은 부관학교 인사행정병 출신이었기 때문에 행정력이 탁월했다. 그 덕분에 한국성서신학교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었다.

둘째, 부지런하고 성실하며 책임감이 강하고 신실한 사람이었다. 김성철은 신학교 업무 뿐 아니라, 조 가맨(Joe R. Garman) 선교사의 전도 집회 때에도 무대장치, 섭외, 포스터 인쇄, 안내문 발송 등의 일도 도맡아 하였다. 조 가맨의 전도 집회는 많게는 1,500-3,000여명까지 모이는 대 집회였다.



김성철 목사의 충남대 경영대학원 졸업 기념사진
양정애 사모, 기숙, 기원, 김성철 목사, 조사환 목사, 김찬영 목사

셋째, 김성철은 한국 그리스도(인) 의교회들의 전설적인 인물인 김은석 목사의 아들이었으므로 신뢰도가 높았다. 이런 일도 있었다. 시기와 질투 그리고 모함으로 인해서 김성철이 사표를 쓰지 않을 수 없었을 때, 존 힐 선교사는 전 직원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여러분 오늘은 대단히 섭섭한 날입니다. 오늘로써 신학교를 단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김성철 씨를 내보내고 나도 미국으로 떠납니다. 실망했습니다.” 이런 충격 선언에 난리가 나고 수습위원회가 구성되기까지 하였다.

넷째, 김성철은 충남대학교를 졸업하였다. 당시로써는 높은 학력의 소유자였다. 김성철은 충남대학교 대학원에 다닐 때 충남지역 유지급 인사들과 교분을 쌓았고, 계룡 와이즈맨 클럽(30대) 제2대 회장도 역임하였다. 이 무렵 김히영 한국성서신학교 교수는 한밭 와이즈맨 클럽(40대)의 회장이

었고, 훗날 국제 총재를 역임하였다.

1970년 사표를 쓰기까지 김성철은 대략 5년간 온갖 곳은 일을 다 맡아 하면서 한국 성서신학교 발전을 위해서 헌신하였다.

학교를 사직한 후 존 힐 선교사의 간곡한 부탁으로 김성철은 대전의 선교부와 서울의 '데이빗 리빙스턴 파운데이션'이란 선교단체에서 일을 하게 되었다. 1972년 미국에 이민하기 전까지 한국에서 행한 마지막 일이었다.

김성철은 서울에서 각 교역자들이 일하는 40여 곳에 생활비를 보내주고 재단관리, 문서관리, 법적 공문관리, 고아원 협조, 그 모두를 종합해서 미국에 보고하는 일을 맡아했다.

미국에는 1972년 11월 20일에 도착하였다. 미국에 건너가서 조정자격증과 풀 깎기 자격증부터 취득했다.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께서 이 사람 저 사람 도우미들을 붙여 주셔서 은혜 가운데 어렵지 않게 영주권을 취득하게 하셨다.

하나님은 진실하고 성실한 자를 도우신다. 미국에서 유학생활동을 마치고 귀국한 김찬영 목사는 미국으로 떠나는 김성철에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라고 권면하였다. 그의 권면대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기도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

간절히 기도했더니, 수입료만 챙기는 변호사에게 영주권 신청을 맡겨 영주권 취득이 물 건너갈 뻔했던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생면부지의 조사관 패튼부부를 알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일을 정확히 처리하는 변호사를 소개받아 영주권 신청을 맡기게 하셨다. 또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애리조나 주 피닉스에 세워진 한인교회에서 전도사 사역도 하게 하셨다.

김성철 전도사는 영주권 인터뷰를 앞두고도 애리조나의 그 뜨거운 땅바닥에 주저앉아 기도하고 또 기도했다. 신체검사를 해야 하는데, 폐에 이상이 있었던 것이다. 또 목사안수문제도 마음에 걸렸다. 일찍이 “지금까지 내게 앞길을 열어 주신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뜻만으로 내 앞길을 가립니다.”라고 서원했지만, 그 서원을 지켜야할지를 결단해야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김성철은 아버지 김은석 목사의 유언을 따라 목사가 되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영주권을 받게 될 것이냐 받지 못하게 될 것이냐를 놓고 뜨거운 땅바닥에 앉아 뜨겁게 기도하였던 것이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토롤라 회사의 기술 부사장으로 재직하고 있던 김영수 집사를 붙여 주셨다. 그는 가족과 처가식구들까지 모두 이민을 왔기 때문에 이민에 관련된 일들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 그가 말하길, 가장 중요한 것은 재정보증이니, 인터뷰 갈 때 자기 교회에서 보증을 서주겠노라고 했다. 그와 동시에 목사안수를 받을 것을 권유하였다.

인터뷰를 한 달 앞두고 지정 병원에 가서 검사받은 결과를 담은 봉투를 받아 들고 열어보지도 않은 채 또 하나님께 기도하였다. 기도 중에 “뭐든지 원하는 대로 해줄 터인데 너는 무얼 할 거냐?”는 하나님의 음성이 마음에 들려왔고, “내 뒤를 이어 목사가 되라”는 양부 김은석 목사의 유언도 상기되었다. 그래서 목사안수를 받게 되었다.

존 힐 선교사에게 연락을 취했더니, 크리스천 미션 파운데이션 안에 재미한인을 위한 목사안수제도가 있다고 했다. 3일을 금식하고 신앙간증서를 제출한 후에 존 힐 선교사가 목회하고 있는 시애틀 야키마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1974년 7월 초 금요일에 존 힐 선교사를 비롯하여 총 다섯 분으로부터 목사안수를 받았다. 그로부터 10일 후에 영주권 취득 인터뷰를 받게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재정 보증서를 써준 김영수 집사로 하여금 인터뷰에 동행하게 하셨을 뿐 아니라, 이민관의 질문에 그가 알아서 대답하게 하셨다. 게다가 하나님께서는 이민관으로 하여금 “당신이 원하는 것이 뭐냐?”고 묻게 하셨고, “가족을 못 만난 지 2년이 되어 가족이 몹시 보고프다. 매일 아이들이 아픈거린다”고 대답했더니, 이민관이 말하기를, “내가 가족이 미국에 이민 올 수 있도록 돕겠다.”며 즉석에서 “이 사람의 가족 모두 시급히 이민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전문을 한국 대사관에 쳐주게 하셨다. 이런 특별한 은혜로 온 가족이 여권을 내고 특급으로 이민비자를 발급받아 1974년 11월 5일 미국에 도착하였다. 한국을 떠난 지 2년 안에 이뤄진 가족상봉이었다.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였다. 십 수 년째 비자대행 업무를 담당했던 여행사 직원조차도 이런 비자는 처음 봤다고 말할 정도였다. 하나님의 뜻과 양부의 뜻을 이루겠다고 다짐하고 목사안수를 받자마자 영주권 인터뷰에 통과됐고, 영주권을 받고 또 4개월여 만에 특급으로 가족이민이 이뤄지게 되었던 것이다.

김성철 목사는 애리조나 주에서 시작한 첫 목회 때 사례비 전액을 하나님께 헌금으로 되돌려드렸다. 애리조나 주 피닉스에서 사모가 풍토병으로 고생했고, 둘째 아들이 건조한 기후 때문에 자주 코피를 쏟곤 하였다. 때마침 오하이오 주 신시내티에서 목회도 하고 식료품가게도 운영하던 홍린원 목사가 그곳의 습한 기후로 인해서 기관지 천식을 심하게 앓고 있었는데, 지인의 권유로 애리조나 주 피닉스로 요양차 김성철 목사를 찾아오게 되었다. 홍린원 목사는 피닉스에 머물면서 병세가 호전되었다. 그래서 김성철 목사는 그분에게 교회를 떠맡기다시피 하고 가족과 함께 LA로 이사를 하였다. LA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피닉스에서 가족을 괴롭혔던 질병들이 모두 사라졌다. 홍린원 목사는 피닉스가 체질에 맞고, 김성철 목사 가족에게는 LA가 체질에 맞았던 것이다.

LA에서는 글렌데일에 거주하면서 글렌데일 중앙 기독교회를 설립하였다. 목회와 병행한 햄버거 가게의 수입이 신통치 않았는데, 하나님께서는 만두를 빚어서 팔아 돈을 벌게 해주셨다. 햄버거 가게가 잘되자 가게를 빼앗으려는 사람들이 생겨났다. 그래서 적당한 사람을 찾아 제 값을 받고 팔아버리고, 채소와 과일을 받아다 파는 가게를 다시 열었다. 건물주가 “당신들은 하늘에서 낸 사람이다”고 말할 정도로 매출이 대단하였다. 돈 셀 시간도 없고 은행에 입금할 시간도 없어서 집 뒤뜰에 장독을 묻어두고 그곳에 돈을 쌓아둘 정도로 장사가 잘 되었다. 그렇게 번 돈으로 집을 마련하였다.

김성철 목사는 자신의 채소가게가 유명해져 지속적으로 큰돈을 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장사를 접고, 하나님 사역에 매진하겠다고 다짐하였다. 그래서 채소가게를 남에게 세우고 기도원에 들어가 금식하며 울부짖어 기도하였다.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나의 일인데 네가 왜 걱정하느냐? 채소 과일 장사할 때 열심히 했더니 돈도

별고 집도 샀는데, 교회 일도 그렇게 열심히 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셨다. 그렇게 기도응답을 받고 기도원에서 내려와 ‘서부 한인 기독교회’를 세웠다.

김성철 목사는 교회 운영에 관한 몇 가지 방침을 세워 실천하였다.

첫째, 헌금 바구니를 돌리지 않는다.

둘째, 헌금함을 비치해 두고 자율적으로 헌금하게 한다.

셋째, 헌금을 강조하지 않는다.

넷째, 헌금한 사람을 호명하거나 후보에 신지 않는다.

다섯째, 건축 헌금을 걷지 않는다.

여섯째, 교회 출석을 강요하지 않는다. 원하는 가정에 한해서 심방한다.

일곱째, 교회 행사는 교인의 부담을 주지 않는 한도에서 실시한다.

여덟째, 주일 예배는 한 시간 안에 마친다.

‘서부 한인 기독교회’가 창립 10주년이 되었을 때 출석 교인 수가 350여명이나 되었다. 이렇게 부흥하게 된 데에는 김성철 목사의 특유의 부지런함과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주의 일에 사용하데 있었다.

김성철 목사는 한국에서 이민 오는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였다. 공항에서부터 픽업하여 아파트를 얻기까지 집에서 기거하게 해주었고, 아파트를 얻으면 운전면허증을 받을 때까지 운전을 해주거나 운전을 잘하는 사람을 소개해서 해결해 주었으며, 어린이가 있으면 학교에 입학시켜 주었고, 미국에 오면 누구나 가져야 할 사회보장번호(Social Security Number)도 받게 해주었으며, 영주권을 가지고 온 사람은 영사관에 동행해서 거주 신고하는 일을 대행해 주었고, 자동차 사는 일도 알선해 주었으며, 보험에 들어야 하면 보험을 알선해 주었고, 많이 아프면 병원에 가서 입원절차를 밟아 주었다. 또 가정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상담해 주고 필요하면 언제든지 교통편도 제공하였다.

김성철 목사는 자기 시간을 포기한 채 이민자들의 손과 발과 눈과 입과 귀가 되어주었고, 가능한 한 모든 도움을 주는데 헌신하였다. 그 결과 교회 창립 10주년이 되었을 때 등록교인의 70퍼센트가 초신자들로 채워졌다. 한국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던 사람들은 10퍼센트에 불과했다. 나머지 20퍼센트는 수평이동 교인들이었다.

김성철 목사는 교회의 직분자를 세우는 일에도 원칙을 세워 실천하였다.

첫째, 매주 출석해야 할 것,

둘째, 십일조를 생활화해야 할 것,

셋째, 전 가족이 교회에 나와야 할 것,

넷째, 술과 담배를 삼가야 할 것,

다섯째, 이혼한 상태가 아닌 사람이어야 할 것.

김성철 목사는 네 개의 이민교회를 개척하여 섬겼고, 두 개의 어린이학교를 세워 운영하였으며, 세 곳의 쇼핑몰(비즈니스)을 매입하여 관리하였다. 또 안대진 목사와 함께 루선 밸리(Lucerne Valley) 바위산 언덕 아래 세운 ‘미션 비전 센터’(Mission Vision Center)⁴⁵⁾에 고 김은석 목사의 기념관을 설치하였으며, 2020년에 도서출판 시시울을

45) <https://missionvisioncenter.com/>.

통해서 『한국의 바울 김은석 목사』(조동호 지음)를 발간하였다.